

Tel. 213-739-0403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December 10, 2015 Vol. 509

하나님의 소원

유력 일간지인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 이하 NYT)가 지난 5일, 1920년 이후 95년만에 처음으로 1면에 사설을 싣고 총기 규제 강화에 대한 美 국가적 환기 를 강조했다.

“총기류 확산”(The Gun Epidemic)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이 사설에서 NYT는 인류 생명에 치명적인 무기를 합법적으로 구매 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국가적 수치”라며 위정자 들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토로했다.

이 사설은 이곳 LA 동부 샌버나 디노시에서 발생한 IS 총기 테러로 사건직후 14명이 숨지고 21명이 부상한 지 사흘 만에 실렸다.

그런가 하면 경제 잡지인 포보스(Forbes)지의 선임 에디터인 스티브 포보스는 ‘IS극단주의와 오바마 대통령의 가상전쟁’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지난달 발생 한 IS테러에 의한 프랑스 파리의 총기류 대참사는 오바마 대통령 의 대외 외교 및 군사 정책의 참

혹한 실패라고까지 표현하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는 그동안 수십년에 걸쳐 IS극단주의자들에게 흘러 들어간 엄청난 양(量)의 살상 무기류가 테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급기야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6일 오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미국 의회에 총기규제법안을 재논의하자고 제안하며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IS에 대한 군사 행동 권한을 부여하는 새 결의안 통과에 의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IS극단주의자들과 총기류 테러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우려의 목소리는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그러면 이처럼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 세상의 악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원”에 귀기울이며 철저히 회개하고 말씀(본질)으로 돌아가면 된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면 된다.

이영인 기자



OC교협 회장, 이사장, 후원이사장 이취임예배가 나침반교회에서 지난 6일 열렸다.

“교회 위기 반전은 ‘정체성 회복·연합·섬김’으로”

OC교협 회장·이사장·후원이사장 이취임 감사예배 드려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OC교협) 제25대 임원들이 ‘연합’과 ‘섬김’을 이번 회기의 과제로 삼고 취임했다.

12월 6일 오후 5시 나침반교회에서 열린 이취임 감사예배에서 신임회장 민승기 목사는 “OC교협은 지역사회 복음화와 사회봉사에 있어 교회들이 연합함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히며 연합과 섬김을 약속했다.

이날 이취임식 예배에서 설교한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 담임)는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 받는 현 상황을 의식한 듯 “신앙이 일반화, 보편화 된 현대사회에

서 이제는 교회가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OC교협이 올바른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용서와 화해의 포용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나님께서 하시리라(창41:16)”는 제목으로 요셉의 삶을 조명한 전 목사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용서하고 화해하며, 하나님이 높여 주시더라도 낮아져서 섬기는 OC교협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현금기도한 이서 목사(미 해도 새크

주비전교회, OC교협 부회장)는 교계가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권위를 회복하길 기도했다. 이날 이사장에 취임한 민경열 목사(나침반교회)는 “과거의 부진에 침몰하기보다는 미래의 희망을 조망하며 ‘그래도 여전히 교회에는 희망이 있다’고 외치자. 하나님은 지금 도 살아계시고 새 일을 행하신다. 미력하나마 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후원이사장에 취임한 이중열 장로(남가주동신교회)는 “겸손하게 섬기겠다고 새 포부를 밝힌 신임회장단에 기대와 찬사를 보낸다”며 “뒤에서 최선을 다해 드겠다”고 약속했다.

영 김주하원 의원은 “지난 한 해 동안 제 의정 활동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OC교협에 감사드린다”며 “올해도 새크

라멘토 주의회 조찬기도회에서 한인 목회자와 지도자들이 뜻겁게 기도하길 원한다”며 조정했다. 권석대 민주평통OC·SD회장, 김가등 OC한인회장, 한광성 LA평화통일교육위원회장 등도 축사하며 OC교협이 동포사회를 더욱 잘 섬겨줄 것을 기대했다.

한편, 이날 이임한 직전회장 김기동 목사는 “지난 1년간 많은 분들이 협력하고 기도해 주셔서 모든 일을 은혜 가운데 마무리했다”며 “연합해 준 OC교회들, 교협 임원들, 한인 정치인들, 제가 시무하는 충만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준형 기자



김기동 직전회장(좌)이 민승기 신임회장(우)에게 OC교협기를 이양하고 있다.

“해외 기독교 박해 관심 없는 美國人들”

종교자유 전문가들…박해 문제에 대한 교인들 관심과 행동 촉구

이슬람국가(IS)의 기독교인 학살 을 포함,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해외 교인들에 대한 박해 소식에 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미국인들은 이 문제에 무지하거나 무관심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미국 베클리 종교·평화·세계문 제 센터(Berkley Center for Religion, Peace, and World Affairs) 부 대표인 티모시 새뮤얼 샤 박사는 최근 워싱턴DC에서 열린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 주최 기독교 박해 관련 컨퍼런스에서 “미국 교인들은 기독교 박해 문제에 마땅히 관심을 갖고 나서야 하지만 그 러지 못하고 있다”며, “교인들 사이에 전반적으로 퍼진 냉담함과 무관

심, 무지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샤 박사는 “만약 미국 교인 열 명 중 한 명이라도 전 세계적인 기독교 박해에 분노하고 일어났다면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행동에 나서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컨퍼런스는 ‘오늘날의 기독교 순교자들: 박해받는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란 주제로 열렸다.

주최측인 헤리티지재단은 “고대 기독교의 요람인 이라크와 시리아 등지에서 기독교인들이 추방당하고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다. 우리는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컨퍼런스에 앞서 주제를 설명했다.

손현정 기자

나라정비
나라오토덴트
유럽차전문점
SMOG CHECK
타이어 대리점
GOOD YEAR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월~금: 8am~6pm / 토: 8am~5pm 1201 S. Western Ave, LA 웨스턴과 12가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적성검사를 통한 진로 선택의 지름길
재능 계발·토랜스, 얼바인 Class
(Verbal, Visual, Logical, Creative, Physical, Emotional)
3·7·21 재능캠프
USA Tel:(951) 383-5583
Tel:(949) 329-8222
Email:shelby.moon65@gmail.com
www.MyIvydream.com

미주지역에서 신학교육을 선도하는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가 “2016년 봄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합니다”

B.A. / M.Div.과정 개강 (온라인강의)

“교육의 질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2016년 1월 25일 (월)

ESL 과정 봄학기 개강

2016년 1월 4일 (월)

ESL 과정 여름학기 개강

2016년 5월 4일 (월)

2015-16년 겨울계절학기 강의시간표

B.A.

*pts*ta

과목	주간 / 야간	기간
세계문명사 (필수)	주간	12월 14일 (월) ~ 18일 (금)
정치와종교 (선택)	주간	1월 4일 (월) ~ 8월 (금)
동양철학개론 (필수)	주간	1월 11일 (월) ~ 15일 (금)

유학생 가족(F2)도 학위취득 가능합니다.

입학관련 문의

- 미국 1-562-926-1023 ext. 300 / office@pts.edu
- 한국 지역 대외협력 코디네이터(박정환 목사): 010-6612-1165 / park27-42@daum.net
- 유럽 지역 대외협력 코디네이터(주철현 목사): 010-9086-2458 / diakonria@gmail.com

ESL 문의 및 상담

www.facebook.com/SLCS.EPT

* 전 세계 21개 지역노회로 구성된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 직영산학부인 본교를 들을하면 본 교단 목사고시는 물론 예전통합(PCK) 목사고시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본 교단 소속 노회에서 인수 받은 험프리교단인 예장통합과 미국장로교(PCAUSA) 소속 노회로 이동 가능합니다.

I-20 발행

정회원  충회원

비전 / Vision

학생과 함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학교

미션 / Mission

복음적인 가치 청조를 할 수 있는 리더를 키우는 학교

필드 / Field

800만 명의 한인 디스포라와 해외한인장로회(KPCA) 산하 선교단체에 들어서 사역하고 있는 21개 지역 노회와 지교회, 그리고 미전도 지역을 위해 사역할 수 있는 일꾼을 세우는 학교

www.ptsa.edu

M.Div.

과목명	주간 / 야간	기간
세계선교역사와역동성 (선택)	주간	12월 14일 (월) ~ 18 (금)
하브리어1 (필수)	야간	1월 4일 (월) ~ 15일 (금) : 2주
누가복음 - 사도행전 (선택)	주간	1월 4일 (월) ~ 8일 (금)
사역을위한성경적교정 (선택)	주간	1월 11일 (월) ~ 15일 (금)
요한계시록 (선택)	주간	1월 18일 (월) ~ 22일 (금)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총장 이상명 박사
이사장 박성규 목사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 926-1023 Fax. (562) 926-1025

www.ptsa.edu

“미국예장, 목사안수식 및 임직예배”

목사안수자 4명 · 전도사 임명자 4명

미국예수교장로회총회(총회장 최아브라함 목사)가 지난 5일 오후 3시에 교단 신학대학교인 UCS대학 채플린에서 2015년도 목사 안수식 및 임직예배를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임직예배는 천상필 목사(LA 노회장)의 사회와 김도윤 목사(UCS 대학교 메시코 분교 학장)의 기도와 헌금 특송, 그리고 김대순 목사(가나안교회 원로목사)가 “네 밭에서 신을 벗으라”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서 총회장 최아브라함 목사에 의한 서약과 안수례, 성의 착의, 공포, 증서 수여가 있었고, 김여진

목사(UCS대학 명예총장)의 권면, 정시우 목사(UCS대학 채플린)의 축사, 지막음, 지하람 자매와 UCS대학 재학생들의 축가가 각각 있었으며 강동희 신임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은혜롭게 마무리했다.

목사 안수위원으로는 강양규, 김대순, 김여진, 정상호, 정시우, 최아브라함, Pablo Calderon, Ricardo Joel Ramirez 목사가 섭겼으며 강동희, 이승덕, 정상기, 지광현 씨가 목사가 됐고 서지원, 서경녀, 임인애, 이민우 씨가 전도사로 임명됐다.

교단 측은 “목사 안수 및 전도사 임명 전에 서류전형, 8과목에 거친



목사안수자 4명, 전도사 임명자 4명, 기타 안수 위원 및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목사 전도사 고시, 개인 면접, 소명 인터뷰, 부부 동반 공개 면접 등 총 5번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분명한 소명과 사명을 확인했다”고 전했

다. 이날 임직자 중 강동희 목사와 정상기 목사는 한국에서의 노인 사역과 농촌 사역에 비전을 갖고 준비 중에 있으며, 이승덕 목사는 곧 멕시코 선교사로 파송된다. 또 지광현 목사는 중국과 북한선교에 비전이 있다. 문의는 강양규 목사(213-434-1083)에게 하면 된다.

“예수아대학교 제12회 학위 수여식 거행”



예수아대학교 제12회 학위 수여식이 진행되고 있다.

예수아대학교가 제12회 학위 수여식 및 졸업예배를 지난 3일 중앙루터교회에서 거행했다.

이 학교는 예수아교회연맹 직영 신학교로 2003년 뉴욕에서 설립됐으며 2004년 캘리포니아에서도 개교했고 인터넷으로 전세계에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이날 예배에서 설교는 설립총장

현베드로 박사가 “오메가 그리스도와 지혜로운 처녀”란 제목으로 전했으며 곧 학위 수여식으로 이어졌다.

총 55명의 학생이 졸업했으며 LA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20여 명이 참석해 학위를 받았다.

특히 기독교 선교가 금지된 국가에 거주하지만 위성 과정을 잘 마쳐 학위를 받는 학생들을 대신해 부총

장 심진구 박사가 학위 증서를 받았다.

이날 졸업식 직후에는 목사임직식이 이어졌다. 대니얼 우드합 바스넷 씨가 안수받고 예수아교회연맹의 목사로 임직했다. 모든 행사에 앞서서는 교단 총회와 목사고시, 논문발표회 등도 있었다.

김준형 기자

유스호프서밋 “사랑운동화” 신으세요



지난 7일 유스호프서밋이 산체즈초등학교 학생 200여 명에게 신발을 나눠줬다. 이 단체가 올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나눠준 운동화는 400여 켤레에 달한다.

저소득층 초등학생들에게 새운동화 200켤레 나눠줘

지난 2013년에 설립된 유스호프서밋(Youth Hope Summit)이라는 비영리단체가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새운동화 나눠주기 행사를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이 단체의 대표는 놀랍게도 현재 플러튼 소재 트로이 텍 고등학교(Troy Tech High School) 10학년에 재학 중인 에이미 장 학생이다.

에이미 학생은 현재 감사한인교회(담임 김영길 목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단체를 돋고 후원하고 있는 동역자들도 대부분 감사한인교회 직분자들이다.

이 단체는 이미 지난 6월, 플러튼의 골든힐초등학교와 LA 한인타운의 호바트초등학교에서 총 약 200여 켤레의 새운동화 나눠주기 행사를 가진 바 있다.

이번에는 놀워 학군에 있는 산체즈 초등학교(Sanchez Elementary)에서 새운동화 200여 켤레를 나눠주며 어린 학생들을 격려했다.

벌써 약 400여 어린 학생들이 유스호프서밋에서 마련한 “사랑의 운동화”를 신고 희망의 미래를 꿈꾸며 힘차게 달라져 가고 있는 셈이다.

산체즈 초등학교는 52%에 이르는 학생들이 거의 저소득층 흠리스(Homeless)에 속한다.

학교에서 얘기하는 “홈리스”란 한 가족이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생활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러한 학생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이번 행사의 제목을 “대학진학을 위해 한 번에 한 걸음씩(On the path to college, One step at a time)”라고 정했다. 그리고 학교 추첨을 통해 학생들에게 새운동화를 지급했다.

새운동화를 받든 학생들은 어린 아이들답게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며 마냥 즐거워 했다.

유스호프서밋은 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자체의 다양한 활동과 개인 후원자들의 동참을 통해 운동화 구입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후원문의는 이 단체 디렉터로 섬기고 있는 알렉스(이메일 주소: director@youthhopesummit.com)에게 연락하면 된다.

이스라엘 신학포럼 개최 UBM교회에서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취지를 담고 있다.

주최측은, 성경 전반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언약의 관점과 종말론적 입장에서 이스라엘 선교의 의미와 방향 등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 이해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신학적 논의를 공론화하기 위해 이스라엘 신학포럼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 신학포럼은 미국의 유대인 선교단체인 ‘Chosen People Ministries(CPM)’와 이스라엘 신학포럼 공동 주최로 열린다. 특별히 이번 포럼은 중국교회와 일본교회 등 아시아교회들과 다민족교회들

을 함께 초청하여, 아시아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중국어와 한국어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된다.

강사로는 CPM 출신의 미치 글레이저 박사, 리치 프리만 박사를 비롯해 메시아니 랍비 레리 필드만과 뉴저지 Love and Truth Church 벤자민 오 목사가 강사로 초청된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714-634-8360)나 메일(ubmchurch@gmail.com)로 문의하거나 웹사이트(www.ubmchurch.com)를 참조하면 된다.

*교회 주소: 1531 S Sinclair St, Anaheim, CA 92806

[자료제공 :UBM교회]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 목회학박사(D.Min.)

위치: GOLDEN GATE SEMINARY'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등록마감일: 12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은 11월 1일)

한영이중언어과정은

- 미래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양성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영이중언어로 진행되지만 골든게이트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 714) 256-1311 EXT. 1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LA동부지역 성탄 기념 연합성가제

LA동부 9개 교회 참가해 성탄의 기쁨나눠

글로벌선교교회, 나성한미교회, 동부사랑의교회, 선한목자교회, 선한청지기교회, 엠마오장로교회, 유니온교회, 하나로커뮤니티교회, 아름다운교회

2015 LA동부지역 교회 성탄 기념 연합성가제가 지난 6일(주일) 선한목자교회(담임 고태형 목사)에서 열려 이 지역 9개 교회의 성가대와 성도들이 함께 성탄을 축하하고 기도하며 연합했다.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된 성가제는 선한목자교회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서로의 교회를 축복하며 훈훈한 분위기 가운데 시작됐다. 기도 시간에는 ▲LA동부지역 교회의 연합과 복음화를 위해 ▲미국과 한국에서 테러로 인한 피해와 종교적인 갈등으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미국과 한국의 영적 회복

과 각성을 위해 ▲2세들의 신앙교육을 위해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올려펴지는 찬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라세염 목사(호산나교회 담임)는 "세상이 어둡고 개인마다 많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할 분명한 이유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여서 승리하시고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름다운교회, 유니온교회, 글로벌선교교회, 동부사랑의교회의 찬양 후 테너 김성록 집사가 '시편 8편'과 '하나님의 은혜'를 불렀다. 곧 이어 선한청지기교회, 하나로커뮤니티



연합성가제 개최 장소인 선한목자교회의 성가대가 'Angel's Carol'을 합창하고 있다.

교회, 나성한미교회, 엠마오장로교회, 선한목자교회가 찬양한 후, 모든 찬양팀이 함께 'alleluia'를 열창하고 송병주 목사(선한청지기교

회 담임)가 축도함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인사를 전한 고태형 목사는 "LA동부지역 교회들이 선한목자교회를 위해 연합해 기도해 주

어 힘든 과정을 극복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린다.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 한다"고 말했다.

이인규 기자

〈인터뷰〉 골든게이트신학교 안상희 교수

“미국교회 감소와 선교 위축? 조금 다르게 본다면…”

미국의 기독교 감소와 선교 위축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매년 발표되는 교단들의 교세 통계에 더해 최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교단인 남침례회(SBC)도 재정난을 이유로 선교사를 대거 감축할 것이란 발표를 하면서 그 위기감은 더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교단 산하 골든게이트침례신학교의 신약학 교수이며 한영 이중언어 과정 디렉터인 안상희 교수는 약간 다른 의견을 내어놓는다.

안 교수는 "미국교회 전체를 보면 교세가 상당 부분 감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보수적 교단 특히 남침례회의 경우는 그 감소 추세가 미미하다"고 전했다.

안 교수는 미국에서 가장 큰 개신교단인 남침례회의 현금 상황을 지표로 제시했다. 그는 "소속 교회들이 교단에 내는 협동선교비가

1970, 80년대에는 증가하다가 지난 30년간 감소했다. 그러나 교단 내에서 진보적 성향을 띠던 약 2천여 교회들이 1991년 협동침례회(CBF)를 창립하면서 남침례회를 탈퇴한 후, 2015년에는 협동선교비가 오히려 완만한 증가세까지 띠고 있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진보적 교회의 교세가 감소하는 현상을 두고 "다수의 성도가 보수적 가치를 선호하고 있다"고 추론하고 있다. 그러면서 "성도들은 전통적 기독교 가치를 중시하는데 지도자들은 최신 흐름이나 가치관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경무오성이나 동성애 이슈들은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1900년 동안은 거론 조차 되지 않던 문제다. 1900년간 이어져 온 믿음의 조상들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안상희 교수.

이어 안 교수는 남침례회 산하 해외선교부(IMB)가 선교사를 감축하는 현상도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첫째, 과거와 달리 복음화가 이뤄진 곳이 많기에 선교 전략이 재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브라질은 과거에 선교지였지만 이제 자체 선교사를 파송

할 정도로 복음이 전해졌다. 그렇기에 선교사들의 파송이 재편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선교에 개혁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남침례회는 파송 선교사들에게 안정적인 후원을 약속하는 교단으로 유명하다. 안 교수는 "이 점 때문에 선교사들이 안일한 태도에 젖었을 수 있다. 막대한 예산에 비해 선교 결실이 적다는 자성이 일고 있다"고 봤다.

매년 3억 달러의 예산을 집행하는 해외선교부의 대표에 '래디컬'의 저자이자 올해 36세의 젊은 데이빗 플랫 목사가 임명된 것에 대해서도 안 교수는 "교단이 해외선교에 있어서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선교사들의 태성을 깨자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셋째는 구조 조정이다. 세상은 변화하는데 교회만 옛 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는 것. 이번에 남

침례회가 감축하게 될 선교사는 약 600명인데 이중 나이가 있는 선교사들은 은퇴하게 되며 약 100명은

현장 선교사가 아닌 선교본부 내 직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교수는 이런 이유에서 오히려 남침례회의 해외선교가 더욱 내실을 다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안 교수 있는 골든게이트신학교는 샌프란시스코에 본교를 두고 있으며 브레이아에 남가주 캠퍼스가 있다. 남가주 캠퍼스 내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이 3년 반 전 개설됐으며 현재 약 50여 명이 공부하고 있다. 안 교수는 "우리 학교는 성경 중심적이고 선교 중심적인 학교다. 여러분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학교이며 미국 교단의 좋은 리소스를 한인교회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돋는다"고 자부심을 표했다.

김준형 기자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찰리 정(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새빛 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213-389-8275
520 S. Virgil Ave., #305 Los Angeles, CA 90020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나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임임(설립한의대)

수술없는 한방 성형
차진 턱선을 올려 젊음유지
이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Earn your
Associate degree
in just ...
ONE YEAR!*

LAORT COLLEGE
WE PUT EDUCATION TO WORK

● Accounting
● Business Management
● Administrative Assistant
● Phlebotomy
● Medical & Clinical Assistant
● Medical Office Management
● Pharmacy Technology Administration
● Digital Media
● Computer Aided Drafting & Design (CAD)
●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SL)

한국어 상담 그레이스(Grace)
직 통 : T(213)703-6863
Office : T(323)966-5444

WE OFFER:

- Financial Aid and Scholarships are available (for those who qualify)
- Job and Career Placement Assistance
- Day and Evening Classes
- Transportation Assistance
- Student Visa Assistance
- Accredited by ACCET

LAORT.EDU
800 NON-PROFIT SCHOOLS WORLDWIDE
1.800.998.2678

MID-WILSHIRE CAMPUS
6435 WILSHIRE BOULEVARD
LOS ANGELES, CA 90048

SAN FERNANDO VALLEY CAMPUS
14519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된 ECA 목사안수자와 인수식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투어와 함께 하는 은혜와 감동의 이스라엘 성지순례 ②

“ECA, 시카고에서 목사 안수식 거행”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 동안 ECA(Evangelical Church Alliance)의 올해 마지막 군목 및 일반 목사 안수 최종 인터뷰와 안수식이 시카고 지역 리버밸리크리스천펠로십 교회에서 있었다.

미군 군목 임관 후보생 또는 한인교회 목회자로 지원한 60여 명 후보자는 신학 교육과 사역증명 자료, 섬기는 교회의 담임목사와 멘토들의 추천서 등 서류심사를 거쳤다.

15명이 이를 통과했고 목사고시와 심층인터뷰를 했다. 그 결과 알바인 온누리교회 엄영기 목사, ANC온누리교회 빌리 노 목사 등 14명이 최종 합격하여 목사 안수를 받았고 한명은 강도사 자격을 부여받았다.

ECA 소속 목사는 매년 사역보고서를 제출하고 지정된 노회비를 지불해야만 목사 자격이 유지된다. 사정상 목회를 하지 않으면 목사안수증을 반드시 본부에 반납해야 한다.

ECA는 미국 여러 교단 중 2번째로 군목을 많이 배출한 초교파 단체다. 미군 군목 장교나 병원 원목 등 기관 사역을 위해 공부하거나 초교파 신학교 또는 교단이 없는 교회에 소속되어 안수를 고민하는 분들의 문의를 환영하고 있다.

*문의전화: 310-502-9999
(한인 코디네이터 캐니 김 목사)
*이메일: www.ecainternational.org
김준형 기자



시애틀 목사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에 이현 목사를 선출했다.

“시애틀목사회, 신임회장에 이현 목사 선출”

시애틀 한인 목사회는 7일 시애틀 뉴비전교회(담임 천우석 목사)에서 제35차 정기총회를 갖고 내년도 목사회를 이끌어갈 신임 회장으로 이현 목사(예원침례교회 담임), 부회장으로 천우석 목사(뉴비전교회 담임), 총무에 배명현 목사(시애틀 영락교회 담임)를 선출했다.

신임 회장 이현 목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모두가 협력하는 목사회가 되길 바란다”며 “회원들 모두가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사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설교는 직전회장인 박세용 목사가 ‘얼음냉수’(잠 25:13)란 제목으로 전했으며, 축도는 천우석 목사가 했다.

박세용 목사는 설교에서 “시애틀 목사회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모두가 하나님 되어 협력하기 원한다”며 “서로 돋고 격려하며,

아픔이 있다면 서로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는 시애틀의 모든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년 조찬 기도회로 한 해를 시작한 시애틀 목사회는, 시애틀 연합장로교회 장윤기 목사, 벨뷰장앙장로교회 박인규 목사, 시애틀 뉴비전교회 천우석 목사에서 차례로 이민 목회 탐방을 진행했고 세 차례에 걸쳐 교회 연합기도회를 진행했다.

또한 매주 월요일 족구 모임과 서북미 5개 지역 목사회 배구대회 준비를 통해 친교 모임을 활발히 진행했으며, 특별히 지난 8월 창조 과학 탐사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확인하고 목회자들의 화합과 연합을 도모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신임회장인 이현 목사가 그동안 시애틀 한인 목사회를 위해 헌신을 아끼지 않은 전 회장 박세용 목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김브라이언 기자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

동성애를 탈출한 Ex-Gay들을 통해 그 가주어진 동성애의 실체와 그 불편한 진실을 세상에 공개하는 다큐영화 순회 시사회가 열린다.

*1차: 12월 8일(화) 오후 7시 30분
주님의영광교회
*2차: 12월 10일(목) 오후 8시
선한목자교회
*3차: 12월 11일(금) 오후 7시 50분
주님세운교회
*4차: 12월 13일(주일) 오전 10시
UBM교회
*문의: 714-501-1337

성경정독 모임

1년간 성경 일독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성경정독 모임이 열린다.

*일시: 2016년 1월부터
*시간: 매주 1회(목요일)
*전반: 오전 9시-11시
오후반: 오후 7시-9시
*장소: LA Christian School
*주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문의: 213-380-6236

감사의 계절을 맞아 탑미디어에서 할인쿠폰을 제공해 드립니다.

설교시디



2016 축복 말씀카드



행사용 시디앨범



신년표어를 담은 열쇠고리, 텁블러, 머그컵 제작



각종 현수막 및 스탠드배너



기념 수건



\$20 OFF
(\$100 이상 구매시 사용가능합니다.)

Code:Thanks153

이메일 주문시 쿠폰코드를 써 주시면 되십니다. 쿠폰은 1회 사용가능하며, 중복할인은 불가합니다.
유효기간은 2015년 12월 4일 주문시까지.

좋은 소식의 역군(役軍)

로마서 10:9-15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1. 역군의 의미

좋은 소식(Good News, Gospel)은 전하는 자에게나 접하는 자에게 모두 유익한 것입니다. '역군(役軍)'이라는 말은 일정한 부분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좋은 소식의 역군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자격은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어져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고 근본적으로 회개하고 죄를 사함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2. 진리와 성령으로 무장한 역군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내 죄 때문에 벌을 받아 죽으셨다가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신앙의 궁극적 풋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구원파라는 이단은 순전히 타락한 이성에 호소해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이 말씀만 가지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신 것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는 한 마디만 하면 성령 그 말이 믿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이 입술로만 내뱉는 말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보장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의 신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체험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감동으로 회개하게 역사하셔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타락한 이성이 아닌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는 회개와 신앙고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고백을 하나님에 인정하시고 비로소 보혜사라는 성령을 파송 받을 수 있고 성도라는 호칭이 가능해집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

으로 믿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전인격적으로 의탁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했습니다. "주의 이름"은 예수(Jesus)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예수님에게 자기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용서받을 대책을 세워주려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거나,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내 죄를 대신 벌 받아 자기 백성 삼아주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할 때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행 19:12)했습니다. 이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케와의 일곱 아들도 예수 이름으로 악귀가 물러남을 알고,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고 말하며 자기들도 악귀를 물리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귀신들린 자는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고 물습니다. 그리고는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자격이 있는데 진리와 성령으로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전도와 선교의 역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역군으로 세워서 파송을 하십니다. 그 소식을 듣는 사람이 믿음을 화합하면 복음화 되어지는 소망을 이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인데, 과연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었던 사람, 믿어지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으로 회개하고 신앙고백을 한 사람은 구원을 보장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롬 10:14-15)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을 보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역군으로 파송되기까지는 위로는 예수님의 그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칠십 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 하더이다"(눅 10:17)고 말하며 그 능력이 나타남에 들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 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눅 10:18-20)하셨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파송받은 사역자에게는 하나님의 가장 절대적이고 안전한 보호가 보장된다역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귀신들이 항복했다는 기쁨에 들떠 있기 보다는 성령을 받

았던 그 시간에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체에 등록되어졌다는 사실을 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하늘 시민권자가 되어졌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은 감람산 꼭대기에서 승천하시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하셨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역군이 되는 자격은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을 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내게 계시면 나는 구원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17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 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신앙인의 자세를 갖추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한국 신문 설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한국 선교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해외 선교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워싱턴DC.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오후 4시30분 / 동부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310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신문 설교		미국 신문 설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https://www.youtube.com)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물류 1-877-580-2424 삼육 (310)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시스코, 베이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씨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리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Christian Preschool 원장 초빙

2016학기 Christian Preschool 자체운영과
관련하여 원장을 초빙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린이들을 돌보며 Preschool 운영에
열정을 가지신 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자격: 원장 Director License 소지자
State Policy 규정에 의해
Preschool 운영에
결격사유가 없는 유경험자

제출서류: 이력서, 신양고백서, 자기소개서

제출처: 선한목자교회
우편접수: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이메일접수: info@sunhanchurch.com

문의: (909) 591-6500



www.sunhanchurch.com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직업 가능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Players Tour
12~14살, 18홀, 1~2명 모집
• 피아노반주 가능한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D.D.)
현 '제일좋은 예닮교회' 담임목사



양로병원 노인들을 위한 찬송가 경연대회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장애우사랑교회에서 20년째 양로병원 봉사를 하다 보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치매에서 벗어나고
외로움에서 이기기 위해 매일 찬송가를 암송함으로 할 일이 있다는 소망을 드리기 위한 천양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회를 빛나게 하실 심사위원들(5명) 봉사자분들을
초청하오니 바쁘신 시간을 나누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시간

• 장소: 중앙양로병원

• 12월 19일(토) 오전 10시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1등 1명에게는 100불 상당의 물품

2등 2명에게 각각 50불 상당의 물품

3등 3명에게는 각각 30불 상당의 물품

*** 그리고 찬송가를 모두 암송한 분들에게는
10불 상당의 물품이 주어집니다. ***

*상금 후원을 도와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체크이름: Loving Church of the Disabled => L.C.D

나성열린문화교 박현성 목사, 은혜한인교회 한기홍 목사
나성동산교회 한기령목사, 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
주님의영광교회 신승훈 목사, 나침반교회 민경열 목사
가족양로호텔 박헬렌 원장, 한영재 사장, 스티븐
윤승민 사장, 마동원 번호사 그룹, 모던테크 김종기 사장
풀기준대, 올림픽 칼국수, 남원골 추어탕, 뉴욕제과

† 장애우사랑교회

연락처: 213-705-0404 / Fax: 213-351-0955

P.O.Box 742017 Los Angeles, CA 90004

새벽을 깨우는 영적 거인

하나님이 귀히 쓰신 인물들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사람들과 더불어 일하셨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사람들은 새벽의 비밀을 알았다. 그들은 새벽에 깨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았다.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았다.

새벽은 하루의 첫 시간이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시작한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루를 시작한다. 하나님은 새벽에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총은 새벽에 깨어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은 새벽에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새벽에 하나님은 도우시리로다”(시 46:5).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다.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 자존할 수 없는 존재다. 오직 하나님의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도움을 받아야만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은 새벽에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이루셨다. 아곱이 암복강에서 기도할 때 새벽에 그에게 축복해 주셨다. 그가 새벽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20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나님은 새벽에 흥해 바다를 갈라 주셨다. 하나님은 새벽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다. 하나님은 새벽에 예수님이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시켜 주셨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다. 하지만 새벽에 기도하는 습관은 거룩한 습관이다.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막 1:35). 하나님의 사람들은 새벽에 기도했다. 찰스 시드온은 새벽 4시부터 8시까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드렸다. 요한 웨슬리는 매일 2시간씩 기도했다. 그는 새벽 4시에 기도를 시작했다. 마틴 루터는 “만약 내가 매일 새벽 두 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 면, 그 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씩 기도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우리가 그들처럼 새벽을 깨워 기도한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영적 거인이 될 수 있다.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는 선택하고 결단해야 한다. 다윗은 새벽을 깨우기로 선택하고 결단했다. “하나님이 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깔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깔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시 57:7-8). 새벽을 깨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시이다. 하나님을 향한 혼신과 믿음의 표시이다. 새벽을 깨워 기도함으로 하나님에게 예비하신 풍부한 은혜를 받도록 하자.

성탄의 계절



정우성 목사
남가주광역교회

연말이 되면 우리는 무엇이 그리도 바쁜지 앞만 향해 달려 간다. 무엇을 잊고 버렸는지 알지도 못한채 말이다. 특히 12월 성탄의 계절에는 더욱 그렇다.

12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의 계절에 제일 기다려지는 사람은 누구일까?

2천년 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을 때 성탄을 기다린 사람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한 헤롯의 일당이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흑암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셨다. 하늘에 비친 별을 따라와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 그들의 심정으로 오늘 밤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어느 겨울밤 전나무 숲 사이로 쏟아지듯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미물인 전나무에 이렇게 눈이

오고 별빛이 영롱하게 비치는 것처럼 예수그리스도가 연약한 우리의 마음에 별처럼 다가오셔서 은혜를 비춰주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전나무에 등불을 달고 장식을 했다. 이것이 성탄복(聖誕节, 크리스마스 트리)의 유래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원하시려고(마 1:17), 자유를 주시려고, 율법을 완전케 하시려고(마 5:17), 죄인을 부르시려고(마 9:13), 섭김과 대속의 제물이 되시려고(마 20:28), 풍성한 복과

생명을 주시려고(요 10:10)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그런데 아기로 오신 예수님, 그분은 행복한 아기로 오신 분이 아니었다. 그분은 고통스러운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 그는 태어나자마다 구유에 누워졌을 뿐 아니라 헤롯이 던지는 살육의 칼을 피해 도망해야 했다. 그분의 인생은 처음도 고통이었고 마지막도 고통이었다.

그분의 삶이 이렇듯 고통의 연속이었기에 그분이 우리 인생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신다.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고통을 헤쳐나가고 우리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오신 그분을 간절히 만나기를 기대하며 기다리기 바란다. 바로 그 예수를 만나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 위로자로 오셔서 우리의 상처와 절망을 치유하신다. 대강절 기간,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만나보길 바란다. 대강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즐거운 성탄과 축복된 새해를 맞이하고자 바란다.

기다리는 마음



김성민 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미국 이민 초기 어느날, 아버지가 귀가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오시지 않아 우리 가족 모두 애가 탔던 일이 있었다.

그날 아버지는 서쪽으로 오셔야 했는데 그만 길을 잊고 동쪽으로 가셔서 한참을 돌아 집에 오셨다고 한다. 길눈이 매우 밝은 분이셨는데 아마도 많이 피곤하셨던 것 같다. 아버지는 청소일을 하셨었다.

그 후부터 나는 한 가지 뿐이 생겼다. 아버지가 오실 저녁 시간이 되면 집 밖에서 아버지를 기다리는 일이다. 보통 정시에 오셨는데 혹시 늦어지면 이런저런 걱정을 하며 아버지를 기다렸던 것이다. 그러나 그가 오는 것을 보면 참으로 기뻤고, 기다리던 나에게 웃음을 보이시며 차고로 들어가시는 것을 뛰어 따라가 같이 짐을 내리던 때가 있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으로 좋은 시간이었다. 아버지와 나이 차이가 많아 잔잔한 대화를 여러 번 한 것은 아니었지만, 지금 그 때의 아버지 나이를 지나고 있는 나에게는 따뜻한 추억으로 남아 있다.

12월을 맞아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맞으며 과연 나는 어릴 때 집 밖에서 아버지를 기다리던 것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시간이 지날

께서 말씀하신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마음에 아픔과 고통이 심할 때에도 그 언덕을 넘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펼쳐진다는 것을 알고 기다리는 것이다.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어쩌면 성도의 삶은 그 전체가 기다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기다림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 순종과 결손이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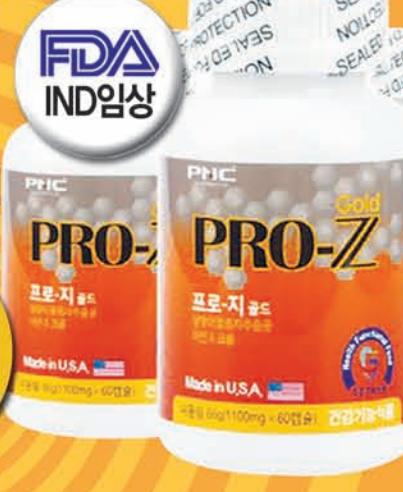
올해 대강절에는 우리 모두 땅에서 일어나는 어두운 일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머리를 들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주신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한다.

올해 대강절에는 우리 모두 땅에서 일어나는 어두운 일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머리를 들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주신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한다.

100%
천연성분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PRO-Z
GOLDSpecial
Price

✓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송해선생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있는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약들은 천연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부종, 신장부종, 간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유수의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송문기 박사팀은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하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인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커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 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아연이 당대사와 밀접하다면, 왜 아연으로 만든 당뇨약은 없나요?

아연은 특성상 섭취 시 인체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굴이나 소고기 등에 아연이 존재하지만, 섭취 후 3~4시간이면 소변으로 배출되고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연이 췌장 세포 기능 복원이나, 근육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포내 아연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야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지금까지 아연 흡수율 제고 물질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의 신합성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을
칼레이트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송문기 박사와 연구팀은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이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고 당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PRO-Z

한국 50만병 판매 SALE

1병 \$69 + tax 3병 \$179 + tax 6병 \$342 + tax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213.434.1170
www.prozusa.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usa1@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타락이 절정을 이룰 때 대부흥은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미국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미국의 50개 주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치 못했습니다. 교회가 머리털 깎인 삼손처럼 힘을 잃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번 더 은혜를 베푸사 어둠의 세력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이 미국에 거룩한 가정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예! 우리 주변에 퍼지고 있는 잘못된 결혼관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성경적 결혼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범람하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나이다. 가정을 파괴시키는 모든 마귀의 계략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땅에 세워진 교회가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동성결혼 반대 운동의 최전선에서 활약 중인 박성규 목사.

■ 기독일보 초대석

주님세운교회 담임 박 성 규 목사

지난달 29일 애나하임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던 다민족연합기독회에서 주강사 중 한 사람으로 나선 토랜스 주님세운교회 담임 박성규 목사는 짧은 메시지를 전한 후, 죄의 밤이 깊어가고 유혹의 물결은 갈수록 높이 넘실대는 이땅을 향한 창조주의 애끓는 마음을 품고 간구했다.

공립학교 내 기도와 성경공부가 위헌으로 판시돼 금지당한지 반세기가 지난 6월 연방 대법원이 끝내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마저 내린 상황에서 그가 절절하게 하나님께 올린 기원은 많은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가슴에 깊이 새겨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낫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역대하 7:14)는 성경말씀을 바탕으로 오롯이 준비한 기도였다.

“하나님께서는 요엘 2장에서 마지막 때에 당신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대부흥을 앞두고 항상 국가와 사회의 영적, 도덕적 타락이 선행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904년 영국 웨일즈의 대부흥이 그랬고, 1906년 아주 사부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서를 써놓고 대언론 홍보 총력전에도 전력투구했을 정도로 동성결혼 반대 운동의 최전선에서 활약해 온 그는 8일 가진 본보 인터뷰에서 할 말이 많은 듯했다.

박 목사는 “우리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음을 겸손하게 고백하며 부르짖어야 한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라고 크리스천들이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힘주어 말했다.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가 들려준 설화는 1984년 인도 중앙에 위치한 보팔에서 일어난 유독가스 유출사고. 유니온카바이드화학공장에서 발생한 참사로 1,500명이 죽고 10만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으나(후유증으로 나중에 죽은 사람도 있어 통계는 자료마다 다름), 골목 하나님만 넘으면 한 마을의 주민 2만명이 몰사하게 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크리스천들이 교회로 몰려가 십자가 밑에서 손잡고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을 때 반대편에서 불어온 강한 바람에 유독가스가 물려가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주님세운교회가 박 목사를 중심으로 전 교인이 한 마음 되어 동성애 확산 저지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1년, 주의회 통과와 주지사 서명을 거쳐 그해 7월 확정된 SB 48(공립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해 가

성애 교육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할 부모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법의안(PRE)과 SB 48을

원천 무효화하는 법의안(CLASS ACT)을 주민투표에 상정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적극 동

참했다. 교인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로 가

서 서명을 받는 팀, 청원서 검토

팀, 중보기도팀 등에 저마다 소속

돼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발품을

팔지 못하는 사람들은 수백 박스

의 물, 간식, 금전 도네이션 등으

로 지원사격을 했다.

박 목사는 “제가 당시 남가주

교협 부회장과 LA성시화운동본부

공동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정

말 온 교회가 힘과 열정을 쏟았

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다 후에

탈퇴한 PCUSA 교단(미국장로교)

이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결정하던 시기

여서 거기에 극렬하게 반발하는 전투적 DNA

가 교인들 안에 형성됐다”는 말로 그때 일을 회상했다.

최근에는 성전환자들이 부담없이 화장실

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돋보이는 명목으로 추

진되는 ‘성중립 화장실’에 반대하는 서명에

능동적으로 참여했다. 남녀가 화장실을 함께

쓸 경우 성범죄의 크게 증가할 것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여러 차례 좌절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의

에 대한 주님세운교회의 저항은 오늘까지 이

어지고 있다. 11일(금) 오후 7시20분 동성애

자들이 말하지 않는 동성애의 진실을 다룬다

멸망의 지름길 동성결혼 합법화 와중

저지 선봉장 자임 교인들과 전력투구

10일에는 다큐 영화 상영 해악 알려

크리스천 사립교 설립운동에도 적극

르치는 것을 의무화한 법)을 무효화하려고 남가주교협, OC교협 등이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 캠페인을 주도하던 때였다. 이 교회는 전교인 특별새벽기도회를 선포하고 자체 운동본부를 발족시켰다. 그후 매일 40명이 4개 조로 나뉘어 토랜스 지역은 물론 LA 한인마켓과 한인축제장 등지에까지 진출, 청원서에 서명을 받았다. 그 결과 한 교회의 힘으로 무려 약 1만 3,000명의 서명을 받는 놀라운 성과를 올렸다. 한인 교계 전체의 서명인 수가 2만 5,000명이었으나, 이교회의 열심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단 수천 표가 부족해 주민투표는 무산되었으나, 주님세운교회는 굴하지 않고 이듬해 동

회상했다.

최근에는 성전환자들이 부담없이 화장실

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돋보이는 명목으로 추

진되는 ‘성중립 화장실’에 반대하는 서명에

능동적으로 참여했다. 남녀가 화장실을 함께

쓸 경우 성범죄의 크게 증가할 것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여러 차례 좌절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의

에 대한 주님세운교회의 저항은 오늘까지 이

어지고 있다. 11일(금) 오후 7시20분 동성애

자들이 말하지 않는 동성애의 진실을 다룬다



한 목회자 모임에서 박성규 목사(맨 왼쪽) 등이 가정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큐영화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의 시사회를 여는 것도 그중 하나다.

동성애의 해악을 알리는 이 다큐는 뉴욕 출신 영화감독 김광진 집사가 연출한 것으로 오랜 사전 조사와 동성애의 마수에서 벗어난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거쳐 만들어졌다.

박 목사는 “시사회에는 김광진 감독과 한국에서 에이즈 환자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수동연세요양병원 염안섭 원장이 함께한다. 지난 8일 우리 교회를 찾은 김 감독, 염 원장과 대화를 나눴다. 염 원장은 동성애를 통해 AIDS가 무섭게 퍼져나간다는 사실을 동성애자들 조차 잘 모른다며 안타까워했다”고 전했다.

“동성애는 그들의 주장처럼 성적 취향이나 선천적 성향도 아니고, 인권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들을 거기서 해방시켜 건강한 가정을 이루도록 돋는 것이 진정 그들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미국의 동성결혼 합법화 이후로 조국도 군대 내 동성애 인정이 시도되는 등 상황이 심각합니다. 영어 자막이 제공되는 만큼 1세는 물론 2세 젊은이들도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사회 후 염 원장이 20분 정도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박 목사는 크리스천 사립학교 설립을 준비하면서 그 필요성을 다른 목회자들에게 알리는 일에도 열심이다. 문제가 터지고나서 뒤늦게 대처하는 소극적인 자세보다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지론인 깨닭이다. 그에 따르면 학교 설립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은 아니어서 작은 교회라도 프리스쿨은 운영할 수 있고 규모가 좀 되면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도 가능하다.

“이제는 우리 자녀들을 기독교 신앙의 전신감주를 입은 리더들로 키워 정치, 문화, 교육, 스포츠 등 각계 각층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게 해야 합니다.”

올초에는 터키의 난민캠프들을 방문, 구호품을 전달하고 시리아, 이라크를 탈출한 이슬람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등 사랑의 실천에도 진력하고 있는 그와 주님세운교회가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자기애, 물질주의, 교만, 부모 거역, 무정함에서 벌원한 고통이 넘치는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을지 기대된다.

김장섭 전문위원

2015 미주기독대학박람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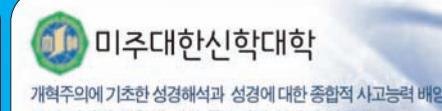
L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 ABHE 정회원, ATS 종회원
• 기독교학회(미), 목회학분야(Div), 상담학분야, 선교학분야,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증 후 미국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분야 과정 신설
• 입학상담: 김성운 목사 T1213407-4566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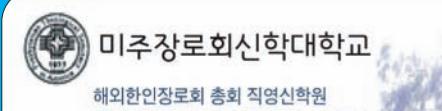
총장: 류중길 박사, 이사장: 김광렬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ceulmaster@gmail.com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중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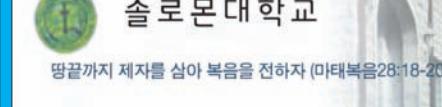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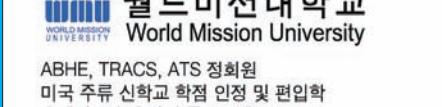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인수 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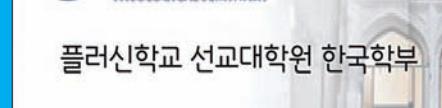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렌트 프赖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5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퍸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학과

학사: 신학/상담학

석사: 신학/목회학/상담학

박사: 신학/상담학

CA 주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520 S. 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 736-5115



혜암신학연구소 제4회 공개강연회가 7일 오후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종교개혁의 만인사제론과 평신도의 사명”이란 주제로 열렸다.

“한국교회, 평신도들의 적극적 개혁 참여 필요”

혜암신학연구소, ‘종교개혁의 만인사제론과 평신도의 사명’ 주제 공개강연회 개최

대사회적인 신뢰도를 잃고 침체된 한국교회, 회복의 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평신도’에게서 그 길을 모색해 보고자 혜암신학연구소(소장 이장식 박사)가 “종교개혁의 만인사제론과 평신도의 사명”을 주제로 지난 7일 기독교회관에서 제4회 공개강연회를 개최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김경재 박사(한신대 명예교수)는 “마틴 루터의 만인사제론과 평신도의 권리와 책임”을 주제로 발표했다. 더불어 한국교회 평신도의 사명과 역할에 대해 지역교회의 지체로서의 사명, 세상에서 복음전파자로서의 사명, 복음의 사회봉사자로서의 사명, 복음의 사회윤리적인 책임감에 대한 사명, 한국교회 연합의 주역으로서의 사명 등을 이야기했다.

기 한국교회 평신도의 사명과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더불어 한국교회 평신도의 사명과 역할에 대해 지역교회의 지체로서의 사명, 세상에서 복음전파자로서의 사명, 복음의 사회봉사자로서의 사명, 복음의 사회윤리적인 책임감에 대한 사명, 한국교회 연합의 주역으로서의 사명 등을 이야기했다.

한편, 각각의 논찬자로는 특별하게 이 경숙 박사(이화여대 명예교수)와 최순양 박사(이화여대 외래교수) 등이 참여했다. 또 종합의 시간, 연구소장 이장식 박사가 발언했으며, 강연회 전 경건회에서는 서광선 박사(이화여대 명예교수, ‘신학과 교회’ 편집위원장)가 사회를 보고 오성종 박사(칼빈대 교수)가 기도한 후, 강근환 박사(전 서울신대 총장)와 김균진 박사(연세대 명예교수)가 각각 설교하고 축도 했다.

김진규 기자

“한기총, 종교인 과세 법제정 ‘반대’ 표명”

한국교회 대표적 연합기구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가 2일 성명을 통해 “최근 국회에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종교인 소득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제출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기총은 먼저 “원칙적으로 종교인 과세를 법으로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며 “대형 교회들은 현재도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교회나 교단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한기총은 “교회와 교단들도 종교인 과

세에 대해 자체 공청회나 세미나를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왜냐하면 납세 대상에 들어 가지 않는 미자립 교회들이 한국교회의 80% 정도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종교인 과세는 시기상조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성직자들이 마치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게 하는 여론에 편승하여 정부나 국회가 이 문제의 결론을 성급히 내려서는 안 될 것”이라며 “현재와 같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되, 시간을 두고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함께 결론을 만들어 갈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대웅 기자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왼쪽 세 번째)가 박무용 총회장(오른쪽 두 번째)에게 약정서를 전달한 뒤 임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랑의교회

“사랑의교회, 미자립교회 지원에 10억 기탁하기로”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가 미자립교회 지원을 위해 10억 원을 내놓기로 했다.

오정현 목사는 지난 3일 서울 예장 합동(총회장 박무용 목사) 총회회관에서 열린 제1차 교회자립지원위원회 실행위에서 “미자립교회 문제는 공교회성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면서 “총회가 역할을 두고 추진하는 이 시책에 10억 원을 3년에 걸쳐 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후 약정서를 박무용 총회장에게 전달했다.

사랑의교회에 따르면, 앞서 교단 소속 대형교회들은 이 지원사업의 효율적 촉진을 위해 100억 원의 기금을 마중물 성격으로 모으기로 했다.

교회자립지원위 실행위원장인 오정현 목사는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사랑의 교회도 9명에서 출발한 미자립교회였다”며 “대형교회가 미자립교회를 돋는다는 것은 시혜가 아니다. 오히려 대형교회가

정화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무용 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랑의교회에 감사하며 “미자립교회 돋기는 한국교회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역할 사업이다. 가시적 성과를 얻어 한국교회를 선도해 미자립교회가 든든히 서 가도록 하자”고 전했다.

사랑의교회는 이미 1년 전 ‘에벤에셀 실천운동’을 만들어 농어촌 등 15개 지역 250여 미자립교회를 재정·사역적인 면 등에서 지원해 오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미자립교회 지원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한 실태 파악과 전담직원 배치, 재단 설립 등을 논의했다. 또 기존 시행 중인 입시철 흄스테이와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명절 및 휴가철 고양 교회 방문 등도 계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3월 3일 151개 노회 자립 위 위원 및 노회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교회에서 교회자립지원위 전진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교회자립지원위 실행위원장인 오정현 목사는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사랑의 교회도 9명에서 출발한 미자립교회였다”며 “대형교회가 미자립교회를 돋는다는 것은 시혜가 아니다. 오히려 대형교회가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점은이 예배 오후 2:22 오후 6:20(토)
주일-바침증학교 토요대체 - 17와 버몬트 코니
주중세미-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김기설 담임목사
www.Lasarang.com

주일예배 오전 11:20 수요예배 오후 7:00
죽인학교 오전 11:20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

연제선 담임목사

LA 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민2세를 배우자며, 이민가정을 치유하여,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증학교 T.(213)386-2233

김기설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 온하늘교회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 90019
T.(818)983-9024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Youth부 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00

연제선 담임목사

LA 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 90006
T.(213)909-6473 / www.missionla.org

김기설 담임목사
www.Lasarang.com

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월~토)
저녁 오후 7:30(화, 목, 금)

엘리야 김 담임목사

978 S. Hoover St. #203, LA, CA 90006
T.(213) 272-6031

한천영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한기형 담임목사

978 S. Hoover St. #203, LA, CA 90006
T.(213) 272-6031

진유철 담임목사

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월~토)
저녁 오후 7:30(화, 목, 금)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 #203, LA, CA 90006
T.(213) 272-6031

한기형 담임목사

978 S. Hoover St. #203, LA, CA 90006
T.(213) 272-6031

서건오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한기형 담임목사

978 S. Hoover St. #203, LA, CA 90006
T.(213) 272-6031

진유철 담임목사

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월~토)
저녁 오후 7:30(화, 목, 금)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

한기형 담임목사

978 S. Hoover St. #203, LA, CA 90006
T.(213) 272-6031

서건오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한기형 담임목사

978 S. Hoover St. #203, LA, CA 90006
T.(213) 272-6031

진유철 담임목사

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월~토)
저녁 오후 7:30(화, 목, 금)

나성서부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org

한기형 담임목사

978 S. Hoover St. #203, LA, CA 90006
T.(213) 272-6031

진유철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한기형 담임목사

978 S. Hoover St. #203, LA, CA 90006
T.(213) 272-6031

진유철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한기형 담임목사

978 S. Hoover St. #203, LA, CA 90006
T.(213) 272-6031

진유철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주일예배 3부 오전 1: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한기형 담임목사

978 S. Hoover St. #203, LA, CA 90006
T.(213) 272-6031

진유철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주일예배 3부 오전 1: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한기형 담임목사

978 S. Hoover St. #203, LA, CA 90006
T.(213) 272-6031

진유철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주일예배 3부 오전 1: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한기형 담임목사

978 S. Hoover St. #203, LA, CA 90006
T.(213

LA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후 5:30, 토(일)오후 6:0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 591-6500 sunhanchurch.org

김성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월-금) 오후 5:30
수요전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후 6:00
주일성공부 오후 9:30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영어회중예배-주일 오후 1:00

남가주새소망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 872-2405 교회, (503) 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박신철 담임목사

3부예배 오후 11:45
수요말씀강해 오후 7:30

4부 창성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온전한) 5:30(토) 오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은혜로 저지되어 사랑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inlandchurch.org

최승목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1:45

3부예배 오후 7:30

4부 창성예배 오후 6:00

주일예배 오후 9:30 (지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화요예배 월-금 오후 6:00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이승준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0:00

3부예배 오후 11:45

4부 창성예배 오후 8:00

사우스 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11:00
다민족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후 5:30(월-금)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213) 365-9188

정상용 담임목사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예배(EM) 오후 2:00

4부예배(EM) 오후 11:00

5부예배(EM) 오후 7:30

6부예배(EM) 오후 9:11시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후 11:00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전 5:30(화-토)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후 11:00

대홍장로교회

명끌까지 내 즐인이 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김준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후 6:00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후 11:00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후 11:00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후 11:00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후 11:00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후 11:00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후 11:00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후 11:00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후 11:00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후 11:00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후 11:00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후 11:00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후 11:00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후 11:00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후 11:00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후 11:00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후 11:00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후 11:00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후 11:00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후 11:00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후 11:00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후 11:00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후 11:00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후 11:00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후 11:00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후 11:00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후 11:00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후 11:00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후 11:00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후 11:00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후 11:00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후 11:00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후 11:00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후 11:00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후 11:00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후 11:00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후 11:00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후 11:00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후 11:00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후 11:00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후 11:00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후 11:00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후 11:00



IS 대원들을 위한 무기, 군수품, 옷, 군장 등을 판매하는 IS의 무기시장. © 오로라의 공상 블로그

“이라크에 유입된 무기가 IS화력의 원천”

국제앰네스티 패트릭 월켄 주장 …수십년간 이라크에 반입된 무기가 문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인 이슬람 국가(IS)의 막강한 전투력의 배경에는 수십년 동안 이라크에 유입된 전 세계 무기가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제앰네스티(AI) 패트릭 월켄 연구원은 7일(현지시간) “IS의 엄청난 규모의 다양한 무기는 무책임한 무기 거래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하며 “그동안 수십 년에 걸쳐 이라크 내에 무기가 대거 유입됐지만, 규제는 허술하고 감독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IS를 비롯한 극단적인 무장 세력이 무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1980년부터 1990년대 말까지 이란-이라크 전쟁을 거치며 이라크의 무기 보유량이 크게 늘었고,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의 이라크 전쟁 때문에 무기 공급은 계속됐다.

특히 IS는 작년 6월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을 장악했을 때 전 세계에서 온다량의 무기를 확보하여 이라크 전역에서 민간인 대상 범죄에 사용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실제 IS의 주요 무기는 칼라시니코프 소총이지만, 이라크산 타북(Tabuk), 미

국산 부시마스터(Bushmaster) E2S, 중국산 CQ, 독일산 G36, 벨기에산 FAL 등 25개국에서 생산한 총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IS는 이라크 팔루자, 티크리트, 사클라위야, 라마디 등과 시리아의 군과 경찰 무기고를 장악해 엄청난 무기를 전리품으로 얻었다.

지난 5월에는 라마디를 점령하며 탱크 등 100대가 넘는 장갑전투차량을 확보해 이라크 정부군이 IS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 등 무기 수출국들이 부패가 만연한 이라크에 대한 무기 공급의 위험을 알면서도 이를 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월肯 연구원은 시리아 정부군에 대한 전면적인 무기 금수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이라크 무기 수출 규제 강화를 요청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에 대량살상 우려가 있는 재래식 무기의 국제 거래 금지를 위한 유엔 무기거래조약(ATT) 주인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인도네시아, 교회 강제 폐쇄 성탄 야외 예배도 금지

인도네시아크리스천교회가 자카르타에 소재한 대통령궁 밖에서 6번째 ‘성탄절 야외 예배’를 드리려고 했으나 무산됐다. 이 교회는 지난 2010년 정부에 의해 강제 폐쇄됐었다.

이 교회 관계자는 “이 일이 다른 교회들과 기독교 단체들에게 영감을 주어서, 그들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 일어나길 바란다. 다른 교회들에게 단순히 ‘소수자’라는 이유 때문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고 싶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소수종교인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1년 전, 인도네시아 정부는 종교적 화합 증진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비무슬림들은 이 법이 유효하

려면 타종교인 60명의 서명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예배 장소를 짓기 위해서는 미리 지역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교회가 불법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건물이 파괴될 수도 있다. 인도네시아크리스천교회 역시 2008년부터 이 건축 허가와 관련된 시비를 겪어 왔다.

인도네시아 북부의 아체 지역 기독교 인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지난 2006년 이후 약 1,000개의 교회가 폐쇄됐고, 사리아법이 적용되고 있다.

현지 이슬람 이민들이 교회에 불을 지르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기독교인들은 폭력의 표적이 되고 있다.

강해진 기자

“쿠바, 교회 박해 더욱 심각해져”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 · 교황 방문 후 공산주의자들 증오심 깊어져

기독교 박해감시단체인 세계기독연대(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는 최근 공격 대상 중 한 곳인 아벨 산타 마리아(Abel Santa Maria) 지역에 있는 한 교회 목회자인 알렌 토레다노(Alain Toledo) 목사의 말을 인용해 “쿠바에서 교회들을 향한 마녀 사냥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교황의 쿠바 방문과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 이후로 공산주의자들의 교회를 향한 증오와 박해가 심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토레다노 목사는 “쿠바의 교회들을 위한 기도를 요청한다”면서 “나의 경우, 인종차별적 공산주의자들이 우리 집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한 것이 두번째이고, 우리를 길거리로 내쫓고 성전을 파괴하려 한다”면서 “그들의 증오와 분노가 다른 교회로도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회에서 살아왔던 다른 목회자와 그들의 가족들은 이미 쫓겨났다면서, 지난 11월 주택 및 도시계획부 관리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티아고의 BAG(Baptist and Assemblies of God)과 라스 투나스(Las Tunas) 지역의 하나님의 성회(Assemblies of God) 소속 교회들이 주로 공격대상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관리들은 이들 교회들이 합법

적으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토레다노 목사는 관련 문서들을 제출했다고 말하고 있다.

세계기독연대는 정부 관리들이 자신들의 재량에 따라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이고 있고, 교회 파괴를 면하기 위해서는 높은 임대료를 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계기독연대 멤버 토마스(Mervyn Thomas) 총무는 “우리는 쿠바 정부에 쿠바 전역의 종교 단체들에 대한 박해를 면취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시도는 교회의 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남침례회(SBA)는 올해 초 쿠바의 기독교가 급성장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남침례회의 국제선교부(International Mission Board)는 8만3천723명의 스페인어 성경을 지난 3월 쿠바로 보내기도 했다. 당시 국제선교부 커트 어바네(Kurt Urbanek) 쿠바 선교 전략 책임자는 쿠바 관리들이 성경을 보내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바네는 “쿠바 기독교는 놀라울 정도로 성장하고 있고, 이것이 성경이 중요한 이유”라면서 성도들의 수도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O.C./일반 지역

결혼설, 사모교설, 부부교설, 아버지교설
www.GodFamily.com
www.CMF.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주일 9:00AM
새벽예배 월-금 5:30AM
주일예배 2부 주일 11:00AM
주일학교 주일 11:00AM
대형예배(Ecclesie) 주일 2:00PM
제자련회/사역연회 화-목 7:30PM

김일영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NEXT Sa-Rang Church
11 Music Irvine, CA 92618 Tel (949)829-0010(office)
www.nextsarang.com

1부예배 (1부) 10:00am 수요풀피기도회 9: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2부) 1:30pm 금요온전칠아예배 8:00pm
새벽예배(월-토) 5:00am - (금요일) 7:00am
화요증보기도회 7:00pm 토요경년예배 7:00pm

김영길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5.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례예배/예배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성경부 오후 9:30, 11:30
한국대학생연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후 2:30 오병익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2:30 유소등부 예배 오후 12:30
도꾜예배 예배 오전 6:00 설기축 예배 - 매월 4주째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후 2:30

민경연 담임목사

남가주 벤엘 교회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교회
18523 Arline Ave., Artesia, CA 90701
T. (714) 801-1625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후 11:00
2부예배 오후 11:00 나경원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영유아부 예배 오후 11:00 EM 대학부 오후 1:30
유소등부 예배 오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흘어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te)/
T. (562)691-0691 F. (562)691-0698 / nachimban.org

1부예배 오전 9:00 금오성령집회 오후 8:00 박재만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하규암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4552 Lincoln Ave.#207, Cypress, CA 9063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토요새벽 오후 6:00 본당 허규암 담임목사
2부 주일 영어예배 오후 10:00 금요공부 저녁 8:00 본당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김영길 담임목사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찬양예배 7:30pm 안창훈 담임목사
영어예배(EM) 월 9:00am (매월 2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김일권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교회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EM주일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시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김일권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4부 오후 2:00(점은이예배)

이서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 (949) 502-4923 / www.disciplecc.org

1부 예배 오전 8:45 새벽기도회 오후 7:30
2부 예배 오후 11:00 새벽기도회 9:30 (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후 11:00
EM 예배 오후 9:30

이승필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15 4부 청년예배 오후 1:30 김현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00 토새벽 협회 새벽 6:00

주일 10:30 AM Sunday School (All ages) 새벽예배 : 5:30 AM (화-금)
11:45 AM Adult Service 1:30 PM English Service
금요모임 : 7:20 PM (성경 66권 별설경공부)

이승필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이세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사랑하고 기쁨하고 온전한 삶의 무언가로 변화하는 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 예배 오후 1:15 중고등부 오후 9:15
3부 예배 오후 11:30 교육부 오후 1:30
4부 예배 오후 2:00 한부 오후 11:30
KMC대학청년부 오후 2:00

권혁빈 담당목사

1부예배 오전 9:00 P-Kinder(Korean) 오전 11:00 이동준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1:00 Children(1-6)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6:00 Youth(7-12)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8:00(EM) College 오후 1:00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 예배 오후 1:15 중고등부 오후 9:15
3부 예배 오후 11:30 교육부 오후 1:30
4부 예배 오후 2:00 한부 오후 11:30
FAME예배 오후 11:30(장년 영어)

박경호 담임목사

열반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살피는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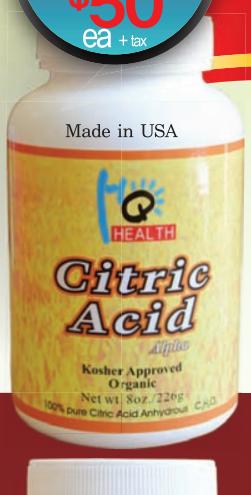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 250-1111 / www.beautifulchul.com

주일예배 1부 예배 오전 11:00
2부 예배 오후 1:15
3부 예배 오후 11:30
4부 예배 오후 2:00

김경호 담임목사

주일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예배 오후 11:30
목요예배 오후 7:30
토요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오전 9:00 & 11:00
새벽예배 화-도



위산과다 개선과
위산연류에 좋은
알파 구연산
\$50
ea + tax

Made in USA

Citric Acid
Alfin
Kosher Approved
Organic
Net wt: 5oz / 120g

HQ구연산은 사랑입니다!

33년 전통의 HQ구연산 명가
Since 1982

HQ구연산의 효과에 대한 명성은 3백만병 판매 대박 히트상품을 만들어 냈습니다. 첫 출시보다 두 배나 더 되는 양으로 고객님들을 모시다보니 더 이상의 보너스를 드리기에는 많은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HQ구연산은 사랑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만들어 낼 만큼 고객 사랑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기꺼이 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연구와 실험 그리고 임상을 거쳐 100% 천연 물질로 각종 암과 난치병, 그리고 아토피와 더불어 면역 결핍으로 야기되는 각종 질병들을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약품인 미리팜-22가 출시되어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성의를 다해 준비했습니다.

HQ구연산은 도매가 이하로 고객 직판을 하기 때문에 건강식품점이나 마켓에서는 구입하실 수 없으므로 타사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구연산을 드실 때 신맛으로 고민하시는 분은 저희 미네랄 건강소금을 함께 타서 드시게 되면 에너지 드링크가 되어 건강에도 좋고 먹기에도 편리합니다.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HQ 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A 알파3병 + 오리지널7병 + 소금1병
프로모션 \$440 \$100 No Tax

B 오리지널10병 +
미네랄 화색 소금2봉지(2LB) =
프로모션 \$460 \$100 No Tax

C 알파6병 + 오리지널2병 + 소금1병
미네랄 화색 소금(1LB) =
프로모션 \$440 \$100 No Tax

HQ구연산은 매실의 80배, 레몬의 200배 농도의 100% 유기농 천연 알칼리 발효식품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가도가도 피고, 만성피로는 만병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100%
환불 보장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며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척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로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을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춰주는데 획기적이다.
- ◇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균육을 굳게 하는 독극물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빈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호르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마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약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약알칼리로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구연산복용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았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드시면 암, 치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됩니다.

- ★ 늘 피곤하던 몸이 가뿐해지면서 삶의 활동력이 넘쳐 좋았다.
-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뚝뚝 떨어져 당약을 조절할.
- ★ 혈압 200이 넘을 때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 신장염으로 온몸이 통통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낫게했다.
- ★ 어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막 못 추는 것을 알았다.
-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더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 빙판에 대한 각각증상이 있었는데 장복 후 시라져 버렸다.
- ★ 대상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르니 나옴.
- ★ 비염, 콧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서 계속 복용중임.
- ★ 7년간 피부암이 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르면서 나아졌다.
-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 나는 당뇨와 17가지 허혈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 린스처럼 사용했더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 ★ 요리할 때 식초 대신에 사용하니까 물기가 없어서 좋았다.
- ★ 당뇨로 잃은 원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 ★ 외출 시 벌레물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 가정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끊고 구연산만 복용.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음.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옴.
- ★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尼斯도 친다.
- ★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피트물이 빠지고 맛도 좋음.
- ★ 나물을 무침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 ★ 공부하는 아이에게 쪘더니 즐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 ★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출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 ★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찍어 바르니 눈이 점점 밝아졌음.
- ★ 허가 심하게 깔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 ★ 위장병으로 솔이 무척 쪘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 ★ 50년된 만성변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 ★ 허리통증, 어깨결림이 구연산 10일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 ★ 오십견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 ★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들었음.
- ★ 만성 아토피와 간암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다.
- ★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얼굴색이 젊어졌음.
- ★ 양순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펴졌음.
- ★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를 후 증상이 사라짐.
- ★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모.
- ★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 ★ 씰이나 이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헛구면 농약 끝.
- ★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낫고 회복.
- ★ 30년된 부정맥이 구연산 복용 후 3일만에 정상복박으로 됨.
- ★ 눈수술 후 안압이 잡하질 않았는데 45일만에 정상이 되었다.

이부경박사는 왜?

의사들의 검진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구연산만으로 내려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만병통치에 가까운 구연산은 왜 의사나 약사들이 권하지 않고 있었을까?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에서 구연산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알 리가 없고 안다고 해도 값싼 구연산으로 병을 고치라고 처방해 준다면 돈벌이도 안되어 병원 간판을 다 뜯어내려야 할 판국이니 누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때로는 내 자신도 이런 신비의 효능의 구연산을 훈자만 알고 건강을 지탱하면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의학계의 눈총을 받아가며 윤을 먹는 걸까 생각해 본다.

건강은 행복의 원천이니 누구나 건강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구연산은 실질적인 건강의 파수꾼이라 할 만하다.

나는 구연산을 복용한 지 이제 막 20년째 들어서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연산의 최장기 복용 기록 보유자가 될 것도 같고

구연산의 신비성에 대하여 나만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애독자들께만은 건강을 선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써 보낸다.

- 이부경박사 현, 건강과학연구원장, 청주교육대학 대우 교수.

[주요 저서]: <노벨상의 건강박사> <당뇨병 치료법> 외 다수.

[상훈]: 녹조근정훈장, 철탑산업훈장, 녹조근정포장 등 수여

안전한 인터넷 홈쇼핑 www.KBSmall.com

HQ헬스 / HQ산삼 / HQ 바이오텍

LA 본점: 833 S. Western Ave. #1 LA, CA 90005
세리토스 직영점: 12224 South Street Artesia, CA 90701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8th St. Western Ave. LA 본점
로데오 갤러리아 아주관광몰내

L. A. 본점 (213)365-2100

세리토스 직영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 10am~5pm

South St. Bora Nae (BORA 내)
Norwalk Blvd.
Bloomfield Ave.
12224 South Street Artesia, CA
세리토스 직영점

장애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시라

우리나라(한국)에는 470만의 장애우가 있다. 전체 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한다. 안타까운 것은 이 장애우들의 90%가 제대로 재활혜택을 받지 못한 채 어려운 가정 환경속에서 좌절과 절망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이다.

처음도 섬김이요 마지막도 섬김이다

■ 엘림장애인선교회

사무총장 고 창 수 목사



지난 7월 열렸던 제26회 여름산상대부흥성회를 마친 장애우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하나님은혜'를 나누며 환하게 웃고 있다.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도 커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장애우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지난 1984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여 장애우들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사단법인)엘림장애인선교회를 설립, 오늘날까지 32년째 섬겨오고 있는 고창수 목사의 결손어린 말이다.

그런 그의 직책은 만년 사무총장이다. 처음도 섬김이요 마지막도 섬김이기 때문이다. 낮은 자리에서의 섬김의 자세가 준비되지 않고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불편한 장애우들의 섬김을 버텨낼 수 없기 때문이다.

고 목사가 처음으로 장애우를 섬기기 시작할 때는 시각장애인이나 지체 부자유자들을 재활원에 소개시켜주고 상담하는 것이었다. 그 후 인쇄업 경영을 통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식자 기술을 전수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돕기도 했다. 그러다가 1990년도 이후에는 장애우들을 향한 영성운동을 중점 사업으로 펼쳐 나갔다. 영혼의 치유(구원) 없이는 결코 육신의 고통을 극복할 수 없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매년 7월 경에 열리는 여름산상대부흥성회이다. 올해로 26회째 열렸다. 특히 올해는 메리스 전염병 확산으로 모든 집회가 취소되는 가운데 치러져 더욱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회가 됐다. 이 밖에도 8월을 제외한 매월 크고작은 성회를 통해 장애우들의 영성사역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 산상대회는 어느덧 한국 장애우들이나 그 가족들에게는 설레이며 기다리는 연중 대행사로 자리매김하게 이르렀다. 크리스천이든 아니든 그 어느 누구나 참가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맞이하기 때문이다.

불신자는 주님을 만나는 영혼구원의 장이 되고, 크리스천에게는 영성회복의 시간을 제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 사랑을 사모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

이 여름산상대부흥성회 참석을 위해 전국 각지(해외 포함)에서 모여드는 장애우들의 숫자는 2천여 명이 넘는다. 그리고 그 지체들을 돋는 자원봉사자들은 1천여 명에 이른다. 그 중에는 수백명의 자원봉사자로 파견된 군 장병들도 포함돼 있다. 총 3천여 명 이상의 숫자가 4박 5일간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한국중앙기도원에 모여 장애우들과 동고동락하며 그들을 섬긴다.

그런데 이 성회 참가비는 무료다.

매년 개최되는 여름산상대부흥성회 참가자 数는

장애우 2천여 명·자원봉사자 1천여 명 함께 참여해

육체적 고통 섬김 통한 영혼 구원은 값진 보람되

약 1억 5천여 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일체의 등록비 없이 무료로 진행된다. 고 목사는 이것이 기적이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기 때문이다.

이 성회가 특별한 것은 자유롭지 못한 지체들을 돋기 위해 군 장병들이 자원봉사자로 파견된다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군 장병 선교로 이 어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실제로 이 성회를 통해 예수님이 영접하는 군 장병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 기적은 올해도 어김없이 이어져갔다. 또한 1명의 중증 장애우를 씻기 위해선 두 서너 명의 장병들로부터 1시간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 속에서도 환한 미소로 담례하는 그들의 천진난만함은 오히려 자원봉사자들의 피로를 풀어주는 청량제로 작용한다.

이 성회를 진행하며 고 목사가 극복해야 할 문제는 단지 인적 물적 협력뿐만이 아니다. 어쩌면 그것은 가장 극복하기 쉬운 부분일 수도 있다. 한 예로, 지난 1993년도 성회에

서는 장애우들이 갑자기 단체로 달려들어 던진 돌(마치 죽이기로 작정이라도 한 듯)에 맞아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고 목사는 강력한 영적무장의 필요성을 느끼고 중보기도 모임을 결성하여

오늘날까지 일년내내 끝임없이 기도해 오고 있다. 30여 명 이상의 중보기도자들이 매주 1회씩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다.

엘림장애인선교회는 현재 하와이, 뉴욕, 시카고, LA 등의 지역에 걸쳐 해외 지부도 결성하여 장애우 섬김 사역을 세계화 하고 있다. 이곳 LA지부장은 김천환 목사(사랑의피선교회 담임)가 맡고 있다. 지난 11월 말, 3년 만에 LA지부를 찾은 고 목사는 미주후원회의 초석을 마련하고 보다 더 적극적인 장애우 섬김에 나섰다. 초대 이사장으로는

헨리 김 목사, 이사에는 에스더 김 선교사가 각각 동역하기로 했다. 헨리 김 목사는 시각장애인을 가진 원로 목사이며 은퇴교수이기도 하다.

고 목사는 나이 13세에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후 16세에 비

로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다. 그 이후로 그는 단 한 순간도 장애우 섬김을 멀리하지 않았다. 그런 그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한다. 그것은 지금까지 이 선교회를 지켜주신 애벤에셀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비하신 후임자를 보내 주셨으면 하는 것이다. 자신 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많은 장애우들의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너무도 간절하기 때문이다.

고 목사는 말한다. “육체적 장애는 불쌍한 것이 아니라 단지 불편할 뿐입니다. 진짜 불쌍한 것은 온전한 육체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곤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이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감격을 안다. 그런데 그 지름길은 어쩌면 환하게 미소짓는 장애우들의 얼굴에서 찾는 것이 가장 빠를 수도 있다. 이순(耳順)의 초침을 바라보며 어린 아이처럼 환하게 웃는 고 목사의 얼굴을 보며 그것이 정답인듯 느껴진다.

*후원문의: 서울(02-2634-6657)

*이메일: ellim54@hanmail.net

*웹사이트: www.ellim1004.com

이영인 기자



고창수 목사(오른쪽)와 미주지역 후원이사를 섬기게 될 에스더 김 선교사.



지난 7월 열렸던 제26회 여름산상대부흥성회에 자원봉사자로 파견나온 군 장병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고창수 목사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겨울학기 학생모집

본 기독교 복음선교 연합총회에서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주 교육국의 승인을 받아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를 진리와 경건이란 학훈을 가지고 설립하고 다음과 같이 2015년 겨울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부문

- 신학 대학교** 신학과(BA) – 4년 / 126학점
- 신학 대학원** 1) M.Div. 교역학 석사 과정 – 3년 / 96학점
2) M.A. 석사과정 – 2년 / 48학점
3) Th.M. 신학 석사 과정 – 2년 / 48학점
4)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3년 / 48학점
5) Th.D. 신학박사 과정 – 3년 / 56학점
- 일반 대학교** 1) 선교사 과정 – 2년 / 56학점
2) 평신도 지도자과정 – 1년 / 36학점
3) 평신도 성경학교 – 6개월 / 12학점
4) 채플린 과정 – 소정 과목
5) ESL 과정 – 1년
6) 유치원 교사 및 원장 과정 – 1년
- 홀스쿨링**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정과 교육의 문제의 대안으로 크리스천 홀스쿨링 교육을 전문으로 지원합니다.



- * 이번 학기 등록 학생들에게는 80% 장학금을 드립니다.
- * 기독교 복음 선교 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교과 과정 중 50%는 인터넷으로 수업이 가능합니다.
- * 본 학교는 분기별(쿼터제)로 학생을 모집합니다.

가을학기 개강일 : 2015년 9월 21일(월) ~ 11월 27일
겨울학기 개강일 : 2015년 12월 07일(월) ~ 2 월 12일
봄 학기 개강일 : 2016년 2월 15일(월) ~ 4 월 22일
여름학기 개강일 : 2016년 5월 16일(월) ~ 7 월 22일

겨울학기 등록 안내 : 2015년 12월 7일 까지 등록 마감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in America (CTCS)

1508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213)999-6884(대표전화), (213)272-6031, (213)235-6889

Need color ?

Precise Enhancement
Multi-function Printer

최첨단 고해상도 칼라 디지털 복합기
칼라복사 / 칼라프린트 / 칼라스캔
팩스/네트워크/Mobile Productivity
최고의 인쇄 품질
획기적인 비용절감



Green M. Wild IMAGE SYSTEMS TEL : 213 705 7778

www.GreenMWild.com . GreenMWild@Gmail.com

bizhub C554e/C454e/C364e/C284e/C224e

C554e Colour B&W 55/55 ppm C454e Colour B&W 45/45 ppm C364e Colour B&W 36/36 ppm C284e Colour B&W 28/28 ppm C224e Colour B&W 22/22 ppm Dual Scan ADF 160 ppm Duplex Dual Scan ADF 80 ppm Simplex

Emerson Drive! USB Print Colour Internet Fax Mobile Support



Simitri with Biomass

Optional : Fax & Finisher

•이슬람 바로 알기

칼빈은 이슬람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존 칼빈(John Calvin, 1509-1564)은 종교개혁을 이끈 프랑스의 기독교 신학자다. 역사의 여명(黎明)기에 칼빈은 가톨릭 사제, 법률가, 기독교 인문주의자가 되고자 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회심을 통해 그는 오직 성경만을 유일한 텍스트로 삼아 그것의 교사(doctor), 해석자(interpres), 수호자(custos)로서 자신에게 부여된 삶을 살았다. 그의 위대한 저서는 그의 나이 27세 때 라틴어로 출판한 기독교강요다. 그리고 그가 쓴 주석은 많은 주석들 가운데 이정표적인 저술로 평가받고 있다. 짧은 칼빈은 기독교 신학의 정수가 되는 교리들을 정리하고 심오하게 제시함으로써, 교리사상 개혁 신학이라는 큰 일가(一家)의 초석을 놓는다.

루터(Martin Luther, 1483-1546)

와 어거스틴(Aurelius Augustine, 354-430)에게서 물려받은, 절대 주권적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칼빈의 비전은, 윌리엄 캐리와 같은 개척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리처드 백스터, 존 베니언, 조지 헤필드, 조나단 애드워즈 찰스 스필전,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스와 같은 위대한 부흥 목회자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 교회의 목회와 정부 통제에서의 적절한 자유에 대한 칼빈의 비전은 장로교 설립을 낳았으며, 거기에서 생겨난 민주주의는 세속정치의 기초가 됐다. 1536년에 제네바에 정착한 칼빈은 영국, 프랑스, 스코틀랜드, 저개발 국가들, 그리고 그 밖의 지역에 있는 개혁자들에게 조언하고 격려하는 인물이 됐다. 1559년 이후에 기독교 대학으로 장식된 제네바 자체는, 수천 명의 학생들과 난민들에게 하나님의 피난처이자 영감이었다. 칼빈주의는 초기 미국을 형성하였고, 서구 기독교는 칼빈주의에 대한 지식 없이는 거의 이해될 수 없다.

1. 칼빈 시대의 이슬람

오스만 터키 군대는 1453년 비잔틴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폴을 점령한 후에 유럽을 공격했다. 1500년에는 알바니아(Albania)를, 1512년에는 몰다비아(Moldavia)를 점령했는데, 그 사이인 1509년에 칼빈이 태어났다. 당시 유럽의 4분의 1은 이슬람에 의해 정복당했고, 칼빈이 태어난 이후에도 이슬람은 계속 유럽의 중심으로 이동했다. 1517년에는 몬테네그로(Montenegro)를 복속시켰는데, 이때가 루터(당시 34세)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때이자 1509년생인 칼빈이 불과 8세의 소년일 때였다. 술레이만 2세

(Suleiman II)는 4년 뒤인 1521년 여름에 세르비아의 수도인 베오그라드(the capital city of Serbia)를, 1527년에 보스니아를 함락시켰다. 무슬림들은 신속하게 헝가리를 거쳐 오스트리아, 폴란드, 러시아, 심지어 리투아니아를 향하여 나아갔는데, 1526년 헝가리의 왕 루이 2세(King Louis II)는 자신의 군대가 다뉴브의 모학(Mohacs)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에 죽임을 당했다. 1529년에는 드디어 오토만의 군대가 비엔나(Vienna)를 포위하게 됐다. 그 무렵 칼빈은 보르게스 대학교에서 학위(B.A.)를 받았고, 회심한 후에 개신교도가 됐다. 루터가 죽던 1546년에는 몰다비아의 전부가 터키에 의해 지배당하게 되었다. 이때 칼빈의 나이는 37세였다.

2. 이슬람에 대한 칼빈의 견해

이슬람에 대한 칼빈의 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신학적 오류를 지적하는 엄격함이다. 칼빈은 다섯 가지로 이슬람에 대한 견해를 정리했다. 다음 내용은 조직신학자 김성봉 박사의 논문 “이슬람에 대한 칼뱅의 견해”에 나오는 내용을 요약하였다.

1) 무함마드는 거짓 선지자

칼빈은 무함마드를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신명기 13장 1절 이하에 관한 설교에서 “기독교 신양을 [삼위]하나님에게로 나아가지 않는 자들이 반대하는데, 그들은 바로 무슬림들,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다”며, “그들은 신성모독을 하였으며, 교회에게 마치 썩은 가지처럼 철저히 단절되었으며, 그들이 복음에 대하여 저항하거나 기독교를 없애기 위하여 애쓰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놀랄 일도 아니”라고 하였다. 칼빈에 의하면 이슬람은 비록 그들 종교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가톨릭과 함께 그들의 오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칼빈은 무함마드를 ‘배교자’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는 대실로니가후서 2장 2절에 나온 당대의 배교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무함마드는 배교자가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배신하였고, 이 배신은 더 확대되었다”고 하였다. 칼빈이 무함마드를 배교자라고 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무함마드는 메카에서 살면서 실제로 에비온파(Ebionite)의 영향을 받았다. 왜냐하면 무함마드의 부인 카디자(Khadija)가 에비온파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이다. 또한 무함마드는



유 해 석 선교사
FIM국제선교회 대표

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이븐 와라카 나우팔(Ibn Waraqah Naufal)은 메카에서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그 역시 에비온파의 사제였다. 에비온파는 A.D.70년 로마의 티토에 의해 예루살렘에 함락될 때 만들어진 종파로서, 기독교이면서도 유대교의 강조점을 보존하였다. 당시에는 메카에 300-400명의 에비온파 신자들이 살고 있었다. 따라서 무함마드는 에비온파에서 이슬람이라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기에, 칼빈은 무함마드를 배교자라고 불렀던 것이다.

2) 이슬람은 이단

칼빈은 이슬람을 이단이라고 단정했다. 기독교인으로서 이슬람에 대하여 처음 연구했던 사람은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살았던 요하네스(Johannes)였다. 그는 무함마드(Muhammad, 570-632)가 죽은 지 약 20년 후에 태어났다. 만수르(Mansour)의 명문가 출신인 그의 아버지는 이슬람 군주 무아위야 1세(Muawiyah, 602-680) 아래에서 재무부 장관을 지냈다. 무아위야 1세의 뒤를 이은 왕이 기독교에 적대적인 정책을 펴자, 요하네스는 예루살렘 근처의 마르사바(Mar Saba) 수도원에 은신했다. 그는 자신의 신학적 저술인 『지식의 근원』 “제2부 이단에 관하여”에서 이슬람을 이단으로 간주했다. 그 이유는 “무함마드가 이단이었던 아리우스파 수도사에게서 정보를 받아서 이슬람을 시작했으며, 꾸란에서 예수님은 비록 ‘알라의 말씀이며 영’으로 언급되지만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칼빈은 요하네스의 뒤를 이어서 이슬람의 이단성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1550년에 집필한 주석 중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을 근거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하는 이슬람은 기독교 이단”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6절을 주제하면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예언을 잘 분별하도록 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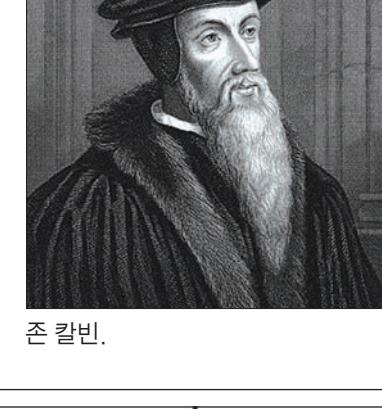
3) 삼위일체를 부인 우상숭배자들 이슬람은 이단 가운데 어떤 이단일까? 이슬람은 한 분 하나님을 강조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일신론적 이단이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타락한 인간은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구해야 한다”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곧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데, 이슬람은 이 믿음을 저버렸다”고 비판한다. “무슬림들도 천지의 창조자는 하나님이라고 힘껏 외치지만,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우상으로서 진정한 하나님을 대치하고 있다”고 했다. 칼빈은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또한 하나님의 없으되”(요일 2:23)라고 한 말씀을 언급한다. 또한 요한일서 2장 18절에 대한 주석에서 칼빈은 ‘적그리스도 왕국의 전령사’들로 여려 이단들을 언급하면서, 무슬림들과 유대인들이 삼위일체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 대신에 일신론적인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고 보았다.

4) 이슬람은 적그리스도

칼빈에 의하면 이슬람은 적그리스도이다. 1556, 7년에 낸 신명기에 관한 설교(18:15; 33:2)에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무함마드는 그의 「알 코란」(Al Coran)이, 교황은 그의 칙령이 절대적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두 뿔이기 때문이다.” 칼빈은 다니엘의 예언들을 전적으로 역사적으로 과거에 일어난 일, 즉 안티오크스 IV 에피파네스(Antiochus IV Epiphanes) 및 고대 로마와 연관시키는 것으로 일관성 있게 해석한다. 칼빈은 교황을 서방의 적그리스도, 이슬람을 동방의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이 둘을 ‘두 뿔’로 언급했다. 칼빈에 의하면, 이슬람을 만든 무함마드는 적그리스도다.

5) 무슬림 선교와 개종 가능성

칼빈은 이슬람을 교리적인 차원에서 예리하게 비판했지만, 무슬림들이 도덕적으로 질이 낮다고 보지는 않았다. 다시 말해, 이슬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의 소재는 교리였지, 윤리적·도덕적 행위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슬람을 추종하는 무슬림들은 저주받아 마땅한 범죄 받은 자들인가” 하는 선교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칼빈은 무슬림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 칼빈은 무슬림이 기독교인들에 의하여 복음화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많은 무슬림들을 신·



존 칼빈.



▲ 콧물빼기 시럽으로 환자가 치료 받는 모습

항상 고가 막혀있고
아침이면 콧물을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체험사례1 9세 여아

콧물빼기를 하니 너무 많은 코가 빠져 나왔다. 환자가 침을 맞으려 하지 않아 별호 한약인 ‘코편해환’을 복용하면서 1주일에 두번씩 치료를 받았다. 치료 5번이 끝난 후, 환자 부모가 “이젠 저녁에 잠을 잘 때 입을 벌리지 않고 코로 숨을 쉰다”면서 너무 좋아했고, 10번이 끝나자 상태가 너무 좋아졌다.

오랜 시간 비염과
코 막힘으로 냄새도 못 맡는 환자

체험사례2 여대생

어릴 때부터 잠을 잘 때 입으로 숨을 쉬다 보니 아침이면 입이 말라 많은 고생을 했다. 1주일에 두 번씩 내원, 콧물빼기와 침 치료를 병행했고 6번 치료후엔 자신도 모르게 코로 숨을 쉬면서 자게 됐다. 그래도 완전히 고치겠다고 15번정도 내원해 치료를 받았다. 모든 치료가 끝난 후엔 코로 숨쉬는 것이 너무 좋다면서 머리가 맑아져서 공부에 집중이 잘 된다고 했다.

경산한의과병원

3030W, Olympic Blvd., Suite 202, LA, CA 90006(삼호관광몰 2층)

류재규 원장(경산한의과 대학교수) T.(213)380-0853

기/독/일/보와 함께 하는

복새통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잠언 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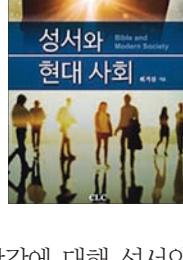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 추천

성서와 현대 사회

위거찬 | CLC | 280쪽



남자와 여자, 가족의 위기와 회복, 부와 가난과 욕망, 종교의 관용, 민족주의와 평화, 인간의 생명, 환경파괴, 세계 종말 등 현대를 나타내는 각 주제를 선별하고 이를 각각에 대해 성서와 역사, 사상의 입장을 기초로 고찰했다. 각 주제들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으며, 기독교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는지, 기독교 사상을 바탕으로 무슨 논의가 있는지 살핀다.

어떻게 은혜를 누릴 것인가

찰스 스펠전 | 브니엘 | 208쪽

'설교의 황태자'인 저자는 안식과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한다. 저자의 사역과 삶의 기준이자 자양분이었던 말씀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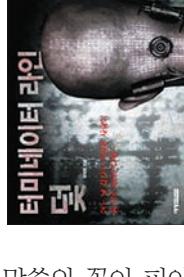


깊이 묵상해 고스란히 농축한 내용으로, 성령충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의 보물창고에 쌓여 있는 넘치는 은혜의 복을 꺼내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터득하게 될 것이다.

땅에 쓴 글씨

김재준 외 | 바이북스 | 184쪽

송창근, 김재준, 김정준, 임인수, 김경수, 문익환, 고정희 등 한국 기독교사에 큰 족적을 남긴 기장 출신 목회자들의 시를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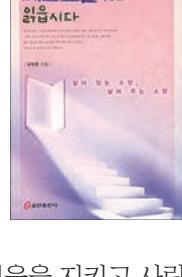


출판사는 광야 갈이 메마른 마음밭에 말씀의 꽃이 피어나듯, 책을 읽는 모든 이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땅에 쓴 글씨'가 새겨지길 기대하는 마음이라고 한다. 시집의 수익금은 장공도서관에 책을 기증하는 '아름다운 도서관'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베드로전서를 읽읍시다

오덕호 | 큐란출판사 | 302쪽

목회를 하다 한일장 신대 총장에 오른 저자의 베드로전서 강해설교집이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소망이 있으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



킬 수 있다. 소망은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베풀게 하는 힘이다. 베드로전서는 소망에서 힘을 얻어 믿음과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 신앙생활에 큰 힘을 주는 베드로전서를 가까이하면, 바르고 힘 있는 신앙인이 될 것이다.

REVIEW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영혼을 치유하는 목회자의 글쓰기”

좋은 글은 치열한 삶의 현장과 목회 현장에서 나온다

“좋은 글을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장 사랑하는 한 분을 앞에 두고 대화하듯 글을 쓰십시오.”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 담임)가 그동안 수많은 영혼들로부터 사랑을 받아 온 그의 글쓰기 노하우를 공개했다. 글 쓰는 자세로 시작해서 글쓰기의 기본기를 다지는 법, 지속적인 글쓰기의 노하우와 기쁨 등을 전하고 있다. 저자에게 도움이 되었던 책 목록이나 실전 글쓰기 샘플, 책을 출판하기까지의 실전 경험들을 통해 독자들은 글쓰기를 시작하는 첫 발을 뗄 수 있을 것이다.

◆왜 목회자의 글쓰기인가?

누구나 글을 쓴다. ‘나는 글쓰기

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실생활에서 우리는 많은 글을 수시로 쓰고 있다. 말로 전달할 메시지를 문자로 담으면 모두 글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은 설교문, 목회서신, 칼럼, 축하 메시지, 추천서, 각종 인사말 등 다양한 글을 쓰고 있다. 저자는 ‘왜?’라는 질문에서 시작하라고 말한다. “무엇을 쓸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 “왜 글을 써야 하는가?” 그리고 이렇게 설명한다. 목회자는 목회자다운 글을 써야 한다. 목회자는 성경적 관점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전한 말씀을 글로 써야 한다. 목회자의 글은 결국 이것을 통해 독자가 하나님과 만나도록 도와주는 데



목회자의 글쓰기
강준민
두란노 | 288쪽

있다. 하나님과의 만남보다 더 좋은 만남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도록, 사랑에 빠지도록 돋는 것이다.

◆좋은 글은 치열한 삶의 현장과 목회현장으로부터

목회자는 성도들의 아픔과 눈물과 원한을 이해하기 위해 그 치열한 삶의 현장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설교와 좋은 글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대신해 질문해 주며, 그 다양한 질문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

◆많이 읽고, 생각하고, 연습하라

글을 잘 쓰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글쓰기를 훈련하는 사람은 드물다. 저자는 기본을 무시한 채 깊은 경지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한다. 물이 임계점, 100도에 이르러 수증기로 변화되기까지 꾸준히

가열하는 것같이 많이 읽고 생각하고 연습하라고 권면하고 있다. 이렇게 축적된 기본기는 작가에게서 통섭, 통합되어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 내기에 이른다. 글 쓰는 사람의 실력은 익숙한 것을 낯설게 만드는 데서 발휘된다. 그리하여 좋은 글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 절망 중에 소망을 준다. 눈이 열리는 느낌을 선사한다. 인생이 열리고, 자신을 보게 되며, 이웃을 이해하게 된다.

좋은 글은 가슴을 뛰게 한다. 우주 전체를 눈앞에 불러들이고, 인생의 사계절을 지각하도록 도와준다. 우리를 이 땅에서 영원한 세계로 이끌어 준다. 하나님께로 이끌어 준다. 이영인 기자

감사의 계절 선물권 대매출

한올한울 장인의 혼을 담은 맞춤 양복, 고객의 마음까지 담은 맞춤 양복, AS는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Gold Finger Tailor

직접 재단/직접 재봉
맞춤 정장/명품 옷수선

T: (213)386.5858

975 S. Vermont Ave #102, LA, CA 90006



김병호
Master Tailor

20% DC
Coupon

“100세 시대, 퇴직 후 30-4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생명보다 귀한 것 위하여 극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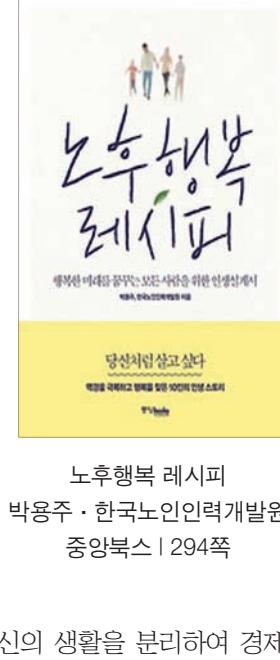
‘100세 시대’를 맞아 ‘행복한 인생 2막’을 살고 있는 ‘은빛 청춘’ 10인의 이야기를 담은 <노후 행복 레시피>가 발간됐다.

이 10인을 인터뷰한 박용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은 “평균 수명 100세 시대는 인간이 막연하게 동경하던 것이었으나, 정작 100세까지 사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 되자 사람들은 그것이 결코 복일 수만은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됐다”며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는 것은 단순히 양적으로 살아야 할 시간이 늘어난 것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30-40년의 새로운 시대를 살아야 하므로 삶의 변화가 찾아온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러나 두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100세 시대에는 퇴직 후에도 공부해서 재취업을 해야 한다. 자식 세대와 함께 늙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식에게 노후를 의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책에서는 재취업과 자원봉사, 취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10인의 ‘레시피’를 소개함으로써 본보기를 제시하고 있다.

이中最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한국 철학계의 대부’로 불리는 김형석 교수다. 올해 96세인 김 교수는 지난 9월 <예수: 성경 행간에 숨어 있던 그를 만나다>를 펴내며 ‘노인장’을 과시하기도 했다. 어린 시절 병약했던 그는 ‘하나님께서 계제 생명과 건강을 주시면 저를 위해 살지 않고 주께서 맡겨 주신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기도했고, 결국 다른 사람 못지 않은 건강을 유지하며 지금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김 교수는 60세가 되면 자식들과



노후행복 레시피
박용주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중앙북스 | 294쪽

자신의 생활을 분리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하고,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이 공짜이므로 노인들에게 무턱대로 복지 혜택을 주는 일을 지양해야 하며, 노년기의 숙명인 고독을 이겨내기 위해 무엇이든 하려는 자세가 필요하지만, 자식들이 부모가 훌륭해졌을 경우 재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그는 “젊었을 때는 용기 있는 사람이, 장년기에는 신념이 있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는 지혜 있는 사람이 잘 산다”며 “나이가 많다고 마음대로 행동할 것이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노인의 지혜”라고 강조하고 있다. 본능적으로 느끼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사랑하는 사람 이든 이웃이든 국가든,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위해 사는 것”이다.

그는 인생 최고의 시기를 보통 사람들이 노년기로 보는 ‘65-75세’라

고 말한다. 몸은 노쇠해지지만, 인간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가장 성숙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철학교수인 그의 ‘철학’은 나이가 들었다 해서 노년기가 아니라, 정신적 성장이 멈추고 사회적 활동이 끝나는 때를 노년기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철학에 따르면, 100세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내고 있는 그조차 아직 ‘노년기’가 되려면 멀었다.

이 외에도 책에서는 배낭 하나 메고 세상을 여행하는 사라토가 도용복 회장, 10년간 귀촌·귀농을 준비한 노해석·손영이 부부, 영화 <인턴>처럼 30년간 글로벌 기업에서 재무통으로 일하다 현재 노인 인턴사원으로 근무하는 정윤민 씨, 봉사활동으로 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찾은 전휘자 씨, 한국 호스피스의 산 증인 이경식 교수 등이 각자의 ‘노후 행복 레시피’를 들려주고 있다.

1부와 3부에서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10년간 축적한 노인의 삶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오래 사는 삶의 복, 준비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 ‘기나긴 후반 인생, 돈보다 일이다’, ‘노후 준비자금 10억은 뜬 구름 잡는 얘기다’, ‘시간 디자인, 머니 디자인보다 중요하다’, ‘배우자의 존재만으로도 복이다’ 등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인생 설계의 실질적 노하우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지난 2005년 12월 설립돼 일자리·재능나눔 등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준정부기관으로, 미래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활기차고 밝은 고령사회 구현’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개발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회개는 왜 해야 하나?”

심을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회심하여, 하나님께 항복하고, 당신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조셉 얼라인은 17세기 영국의 청교도로서 그는 본서(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보내는 경고)를 통하여 역사상 그 이름이 남았다. 1672년 그의 사후에 출판된 본서는 지금까지 350여년 동안 회개(회심)에 관한 고전으로 유명하다.

“어떤 시대에도 조셉 얼라인 목사보다 더 뛰어난 설교자는 없을 것이다”라고 청교도 올리버 헤이우드 목사는 단언했다.

그러나 그의 사역은 일찍 끝났다. 감옥 생활로 인하여 연약해진 그는 3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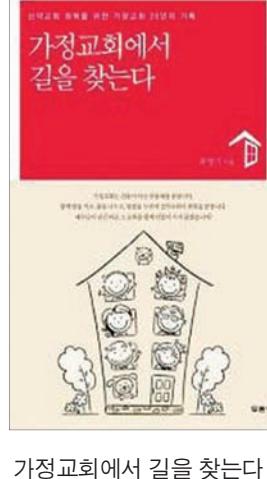
본서는 조셉 얼라인의 메시지의

본질을 구현하며, 청교도 복음전도의 진정한 모범이 된다. 조지 훈필드 (George Whitefield)는 옥스퍼드 대학교 학생 시절, 본서가 그에게 큰 유익을 주었다고 말했다. 또한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펠전은 “나는 아침에 깨자마자 이 책을 읽고, 계걸스레 먹었다”고 고백했다. 그와 같이 스펠전의 마음은 청교도 신학의 불에 타올랐고, 스펠전은 얼라인과 훈필드의 발걸음을 따르도록 예비되었다. 이 책은 회심에 관한 오해들, 그 본질, 필요성, 회심하지 않은 자임을 보여주는 증표들, 회심하지 않은 자의 참상과 그들을 위한 지침들, 그리고 회심의 동기들에 대한 내용을 차례로 싣고 있다.

이영인 기자

“신약교회 회복 향한 가정교회 20년 노하우”

교회의 위기! 가정교회에서 답을 찾다!



가정교회에서 길을 찾는다
최영기
두란노 | 276쪽

“가정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를 추구합니다. 가정교회는 초대 교회인 신약교회로의 회기를 꿈꿉니다. 가정교회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회복하기를 소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입니다.”

이 책은 ‘다른 것’이 아닌 ‘바른 것’을 찾으려고 했다. ‘대안’이 아닌 ‘본질’을 붙잡고자 했다. 성경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일체 하지 않았다. 그렇게 시작된 가정교회가 어느새 20년이 되었다.

신약교회의 회복만을 바라보며 달려온 지난날의 기록을 이 책에 담았다.

최 목사는 지난 20년을 되돌아보며 성경적 교회를 세우겠다는 의지만 있었지, 꿈도 비전도 없었다고 말한다. 계획도 없었고, 구체적인 방법도 몰랐다. 성경 하나 봄들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20년을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교회는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큰 운동이 되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한인이 3만여 명밖에 되지 않는 휴스頓 지역에서 시작된 가정교회가 지역, 문화, 언어, 세대를 뛰어넘어 전 세계로 퍼져 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 밖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책의 주인공은 하나님께서다. 휴스頓에서 시작된 가정교회가 하나님의 주도로 어떻게 세계 곳곳으로 번져 가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손길을 보

목회자로서의 그의 꿈은 ‘신약적인 가정교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는 휴스頓 서울교회의 목회자 심방 형태의 전통적인 ‘구역조직’을, 평신도 목양 공동체인 ‘가정교회’로 바꾸는 일대혁신을 이룬다. 1993년 23개로 시작한 가정교회 숫자가은 퇴하던 2012년에는 180여 개가 되었다. 주일 예배 장년 출석인원도 120명에서 1,000명이 넘게 증가하는 성장을 이루었다(어린이와 영어 회중을 합치면 약 2,000명). 이민교회로서 가히 괄목할만한 성장이 아닐 수 없다.

이영인 기자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 주소: GBMW (체크오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대리점 모집

젊게 하는 세제 “에미나”

우리 가정에서 생활세제는 20가지가 넘습니다. 대부분이 화학세제로서 아토피, 알레르기, 피부질환의 원인이 되고,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이 화학세제를 친환경, 무공해, 항산화 효소세제인 “에미나”가 이제 대신합니다.

일본에서 토양 속의 이로운 균을 이용하여 효소로 제조된 “에미나”는 세탁, 설거지, 화장실, 욕조, 마루, 생활 용품, 세차, 어항, 냄새제거, 목욕, 양치질, 애완동물 관리, 화초, 텁발가꾸기에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 무공해 친환경 세제입니다.

“에미나”는 세제구입 비용과 물을 절약 할 뿐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세제입니다.



식당 화장실 냄새제거 특효

“에미나” 스프레이 하시면 어떤 냄새든지 쉽게 없어집니다. 손님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지독한 식당의 화장실 냄새가 없어지지 않으면 환불해 드립니다.

【가정 필수 제품: 밥돌】

밥 지을 때 밥솥에 두면 밥맛이 좋아지고, 24시간 후에도 밥의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생활 필수 제품: 생생 팩】

생생 비닐팩에 채소, 과일 등을 보관하면 20일이 지나도 생생합니다.

Yirrh Healthy Living Co. 이레 건강

833 S. Western Ave. #15 L.A, CA 90005(로데오 젤리리아)

Tel:323)316-6815

사용 효과

- 세탁: 작은 량으로 화학 물질을 없애 주고, 유연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세탁물의 냄새를 없애주고 마루, 가구, 가전제품, 세차 시 윤이 나오 먼지가 잘 불지 않습니다.
- 청소: (스팀 청소기, 걸레 등)에 사용하시면 냄새를 없애주고 마루, 가구, 가전제품, 세차 시 윤이 나오 먼지가 잘 불지 않습니다.
- 설거지: 기름기, 탄 것이 잘 제거되고 행균을 적게 하여 물이 절약됩니다. 그리고 설거지 한 물은 배수구를 청소할 뿐 아니라 식물에 주면 좋은 토양을 만들어 줍니다. 설거지, 청소할 때에 고무장갑을 끼지 않아도 되고, 맨손으로 하면 피부가 좋아지고, 혈액 순환이 잘됩니다.
- 집안(가구, 이불, 커튼 등), 차, 사무실에 뿐만 아니라 차량의 공기가 깨끗해지고, 친환경(곰팡이, 화학물질, 감마 방사선 칠감 등)으로 인해 호흡기 질환, 비염 등에 좋습니다.
- 냄새 제거: 화장실, 애완동물, 신발, 등에 뿐만 아니라 냄새가 없어집니다.
- 애완동물: 목욕시킬 때 행균을 철저히 하지 않아서 쉽고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어항의 수질이 변하지 않아 냄새가 없습니다.
- 농작물, 화초 재배: 비누가루를 땅에 뿐만 아니라, 작물을 스프레이 하거나, 세탁, 설거지 한 물을 주면 토양을 바꾸어 무공해 농작물을 재배할 뿐 아니라 병충해(진딧물)가 없고 성장이 좋아 질 좋은 작물을 많이 생산합니다. 고추 작물을 사람 키보다 크게, 해바라기를 4m 정도 키울 수 있습니다.
- 과일, 야채 씨를 때 사용하시면 농약을 분해하며, 항산화 작용으로 신선함이 오래가고, 꽃에 뿐만 아니라 토양에 오랫동안 시들지 않습니다.
- 양치질 할 때 국소량을 치약에 발라 사용하면 입안과 치아가 깨끗해지나, 먹지는 마십시오.
- 차의 어여쁜 필터에 뿐만 아니라 성능이 좋아지고, 집안이나 냉장고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 활성산소 제거: 전기 방지, 신선도 유지, 에너지 절감, 해충기피, 습도조절, 결로 곰팡이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 사용 방법
- 세탁 시에는 세탁기(40리터)에 3~5g(티스푼 1개는 5g) 정도 넣은 후 세탁, 담가 두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 집안 청소 시(냄새, 모기, 파리 제거 등) 물의 1/1000 량으로 뿐만 주시면 됩니다.
- 작물에 뿐만 아니라(스프레이) 시 1/5,000~1/10,000 정도로 1주에 한 번 정도, 나무는 2g 정도 땅에 묻어 주면 더 좋고, 시들은 채소, 화초는 3일 정도, 나무는 2일 정도에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양을 사용 하시면 식물이 마를 수가 있습니다.
- 아토피 피부 1/1000 정도, 아기 목욕 시에는 1/10,000 정도로 회색하여 사용합니다.

From One Youth to Many Children: Giving Gifts of Love

200 Elementary
School Students
Receive Pairs of
New Shoes

BY JUNHYEONG KIM
TRANSLATED BY RACHAEL LEE

A Korean American high school student, with the help of several supporters, started off the Christmas season by giving 200 pairs of new shoes to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low-income households on December 7.

Amy Jang, a 10th grader studying at Troy High School, began a non-profit organization called Youth Hope Summit as an eighth grader in 2013. Jang began fundraising through various individual donations and through the proceeds of a concert that Youth Hope Summit hosted during its beginnings.

In June, students in Golden Hills Elementary School in Fullerton and Hobart Elementary School in Los Angeles have already received new shoes. Monday's donation was given to students in Sanchez Elementary School in Norwalk. A total of 400 pairs of shoes were given in total since June.

Sanchez Elementary School selected 200 students in November based on their needs to receive the new shoes, and these students make up some 52 percent of the entire student body.

Jang shared in June that one event that motivated her to begin Youth Hope Summit is hearing the story of Malala Yousafzai, who, at a young age, has been able to make a difference in the lives of many people. Jang also receives help from older adult volunteers, including Alex Yu, the director of Youth Hope Summit to organize events.



200 students at Sanchez Elementary School received new pairs of shoes from Youth Hope Summit on Monday. (Photo courtesy of Youth Hope Summit)

Korean Christian Leaders, LAPD, City Attorney Discuss Collaboration to Combat Homelessness

BY RACHAEL LEE

A group of some 20 Korean Christian leaders gathered at the Olympic station of the Los Angeles Police Department on Tuesday morning to discuss potential ways that they could partner with the community leaders to address the issue of homelessness in the city.

The event, organized by the office of Senator Pro Tempore Kevin de León, featured brief remarks from Ben Pak, the field deputy of the office of Senator de León; Hyepin Im, the president of Korean Churches for Community Development (KCCD); Officer David Storaker, one of the captains of the Olympic Division of the LAPD; and Steve Houchins, the deputy city attorney of Los Angeles. Those who attended were given a brief period of time towards the end of the hour-long meeting to ask questions and share information.

"The Asian community might behave differently than others, but we have the same needs," said Hyepin Im. "And usually, when we have these kinds of gatherings, the community stays quiet. But I hope the Asian American community can take advantage of opportunities like this to boldly speak out about their needs and interests regarding the issue of homelessness."

After brief remarks from Officer Storaker regarding safety and how members of the community can handle emergency situations such as shootings ("Don't just hide under a table and become a sitting

target; get out of there as fast as you can," he emphasized), city attorney Steve Houchins spoke for the majority of the hour on what he and the LAPD Olympic Division have been doing to try to help alleviate homelessness in the city, and what the members of the faith community can do to help.

"If there's one thing I can take away from this meeting, I would like a strong partnership," said Houchins. "And mainly, I need your help in coordinating outreach, to help people on the streets with their needs."

Though each of the 21 LAPD divisions have different methods of trying to alleviate homelessness, Houchins said that a unique initiative that the Olympic division has been carrying out is what he called the "HOPE" car -- a team that is solely dedicated to issues related to homelessness in the Olympic division. HOPE (Homeless Outreach Partnership Endeavor) has at least one officer whose full-time duty is to deal with any issues that arise related to homelessness, and also partners with county agencies such as LAHSA (Los Angeles Homeless Services Authority), LADMH (Los Angeles Department of Mental Health); and non-profit agencies such as Homeless Healthcare, United Way, and PATH. Through HOPE, the LAPD collaborates with individuals in these agencies to work on projects together to distribute care packages and/or hygiene kits, for example, and clean up sidewalks

and streets. The "HOPE car" also directly drives individuals without homes to available shelters every week on Fridays.

"We want the faith-based community to be a part of this partnership," Houchins said.

He went on to say that the primary way the community can help is by sharing information with Houchins, the LAPD, and elected officials about people they know or what they have experienced as they do their work related to homelessness. Hyepin Im added that there are no specifically Korean agencies that target the issue of homelessness, and encouraged those who gathered to be the voice for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regarding the issue.

Houchins added that though he encourages the faith community to be generous and continue showing compassion to "some of the most vulnerable of our community," residual effects of certain actions must als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For example, consistently handing out food, clothes, blankets, or tents at a specific park may cause those who are on the streets to start anchoring themselves at that location.

"Psychologically, everyone has that desire to have a home," Houchins explained, "and for many of those who are homeless, they start attaching themselves to certain locations as their homes."

"This is why communication with people like me, and our LAPD officers here, is so important," he said.

said.

Houchins and others who were part of the meeting mentioned regular meetings such as the Olympic division clergy council which takes place mostly on a monthly basis, and the CPAB (Community-Police Advisory Board) meetings which also takes place on a monthly basis in every police division, and encouraged faith leaders to participate and join the discussions. Those who attended were also into an email listserve, which will be used to notify them of future gatherings specific to discussing the issue of homelessness.

"This was just the first meeting, but I'm hoping that through gatherings like this, we can become more informed and become better partners to combat this issue," said Ben Pak. "This is my problem. This is my city. This is where my kids will grow up. And I hope members of the community would be more and more involved in this discussion for those reasons."

Most of the Korean Christian leaders who were present were Korean-speaking leaders of Korean immigrant churches, including Rev. Kyu-Suh Uhm, the newly inaugurated president of the Korean Pastors Association of Southern California, and Rev. John Jongdai Park, the chairman of the board of KCCD. Rev. James Cho, adjunct professor at Grace Mission University, and Rev. James Yu, lead pastor of Community Christian Center in El Monte, were also among those present.

'Christ Is the Ultimate Authority and Head Over the Church'

Interviews with Asian American Pastors, XXV: Rev. Nathan Kim

BY RACHAEL LEE

"I've been through their experiences -- having been a youth pastor, a college pastor, and an EM (English ministry) pastor before. I know their struggles and needs. So I just try my best to be their friend, someone who can listen to their worries."

Such was Reverend Nathan Kim's response when asked his approach to being a senior pastor. Kim is currently the lead pastor of Torrance Good Shepherd Church, but previous to planting this church 14 years ago, Kim has had 17 years of experience in various positions in the education departments of several Korean immigrant churches. Kim also describes himself as being a part of the "1.5 generation" -- a term used often to refer to those who were born in other countries but grew up in the U.S.

These professional and personal experiences inform his thoughts and approach to leading his church in unique ways, Kim said. He experienced pastors who seemed demanding but not supportive, and often felt that he was being used rather than appreciated -- the "same thing" that many Korean American pastors in education departments of Korean immigrant churches may be facing, Kim added.

However, Kim said he felt that all of these experiences have trained

him to become who he is today.

"It was during those hard moments that I learned about humility, patience. That's when I learned to accommodate to the situation," he said. "Those experiences, and the fruits from those times, is what is helping me as a pastor today."

One of the most significant lessons he learned is that of submitting to leadership. During his years as a pastor in the education departments of various churches, Kim said, "Not all of the pastors that I met were people I felt I could respect easily."

"But I realized Christ is the head of the church, and all authority is from the Lord. We have to submit to the leadership of the Lord," he explained. "So the men that we see -- we don't respect them for their character or leadership, but because of Christ who is the head of the church. I have to see the Lord before I see the man. Because we're not submitting to man first, but we are submitting to Christ first of all. That's how we become humble, and that's what's pleasing to the Lord."

He went on to give examples of figures in the Bible that had to submit to leadership: David, Joshua, Joseph. "David went through so much suffering under Saul's leadership, and Joshua too -- I don't think Moses was perfect, and he also probably went through some pain and disappointment. But that's how God trained these

people to be humble and to trust God."

His experiences have also motivated him to plant TGSC, and to become a senior pastor who can bridge the gap between the older and younger generations within the church, and mentor the younger Korean American pastors. He says there's a particular value in meeting with the pastors on a regular basis.

"We -- all of the education pastors and I -- have fellowship together once a month. I love to take them out and buy them food," he said. This space allows for them to talk not only about church, "but just about life, family, and other things. We joke around a lot."

Kim and the elders at TGSC also try to support the EM through actions, Kim said, such as by supporting their agenda and decisions, and serving them when they have events. For example, the elders would clean up the rooms or bring water before Bible studies or youth events, Kim elaborated.

These efforts to be "servant leaders" as the older pastor and the elders of the church are important to help develop the education department and build up the next generation, according to Kim, and these efforts are also appreciated by the education pastors. Most of the education pastors have served in TGSC anywhere from five to 10 years, and some have even come back after having left to other



Reverend Nathan Kim is the lead pastor of Torrance Good Shepherd Church.

churches. The church currently does not have a lead EM pastor, but Kim said he would eventually be willing to let the EM grow into independence if they are ready.

"I don't think there's a perfect answer on what an EM should become, or how it should grow," Kim said, "and personally, I still think both the EM and the KM need each other. But if the EM is ready in their maturity and character to maintain their own leadership, I would be willing to let them go. It's really the character that matters, rather than the structure or model of what an EM should be."

"And to help build that character or maturity in the EM, I think the older pastors need to mentor and invest in the younger pastors," he added.

Kim said he asked his education pastors already if they would like to become independent. But he said every one of them said they want to remain under "one roof" as one church.

As long as they are together, Kim said, "My focus is to be a stepping stone for them, to support them, and to build them. And our purpose as a church is to build God's kingdom together."

“한국행 가장 싼 항공권~ 하나투어로 문의 주세요” 서울 왕복 항공권 스페셜 이코노미 \$985 | 비지니스 \$3645

(시내·이·비수기) 특정편 특정일에 한함

주중 28일전 발권 조건

★ 하나투어만의 성지순례 체험 특전 - 십자가의 길 순례체험★

[예수님의 걸음걸음 - 성서 속으로]

요르단/이스라엘 10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마가복음 11:11)



하나투어 기독교 성지순례는 왜 다른가요~??

- ▶ 기독교 성지순례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전문 상담가와 상담 및 운영
- ▶ 성지 순례상품 선택의 폭을 넓여주는 다양한 항공 이용과 합리적인 가격
- ▶ 순례자를 위한 감동 서비스! 믿을 수 있고, 안전한 현지 행사
- ▶ 성경의 이해를 더욱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전문 가이드와 전문 인솔자 동행

처음 성지순례를 떠나는 순례객들에게 안성맞춤~ 구약의 핵심을 볼 수 있는 여정입니다.

【요르단】 성경의 땅

- ◆ 영화 [인디아나 존스]의 촬영지로 유명한 新 세계 7대 불가사의 페트라 순례
 - 페트라 시크길, 엘카즈네 사원, 야외 원형극장, 수로 등
- ◆ 세례 요한의 순교지 마케루스
- ◆ 길이 1.2km에 이르는 좁은 페트라 시크길
- ◆ 엘카즈네 사원, 야외 원형극장, 왕들의 무덤, 나비티안 유적, 수로 등

【이스라엘】

2,000년 전 예수님이 계셨던 그 곳. 역사와 종교가 살아 숨쉬는

- ◆ 신비로운 바다 사해에서 부영 체험
- ◆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갈릴리 순례
 - 가버나움, 베드로 수위권교회, 오병이어기적교회, 팔복교회
- ◆ 예수님이 첫번째로 기적을 베푸신 가나와 나사렛 순례
 - 가나 혼인자치 기념교회, 마리아 수태고지 기념교회
- ◆ 기독교 최고의 성지 예루살렘 순례
 - 감람산과 감람산 주변의 기념교회
 -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신 십자가의 길과 골고다 언덕, 예수님 무덤교회

\$2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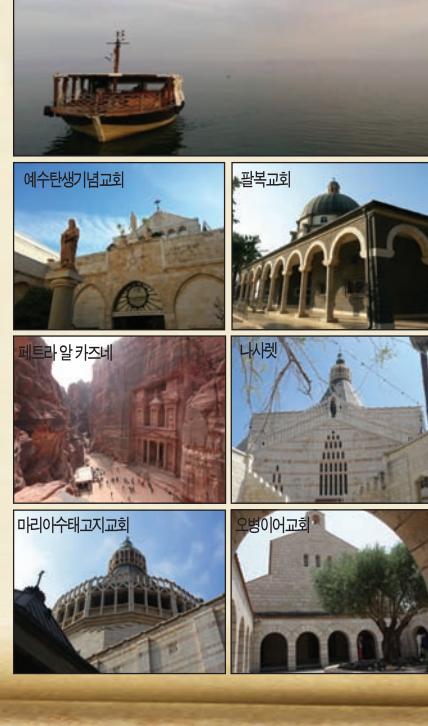
출발일: 2016 1/25

상기 요금은 항공 예약 및 발권 시점에 따라 요금이 인상 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신앙 체험의 현장에서

순례의 감동을 더해 드리겠습니다.

성지 순례도 역시
1등여행사 하나투어와
함께 하세요~



zeus world sponsored by HanTour

[신들의 여행 ZEUS]

하나투어가 선사하는
아프리카 여행

두바이(2박) + 아프리카 7개국 16일

겨울 시즌(12월~4월) 동물들의 이동을 보실 수 있는 곳은 탄자니아의 세렝게티와 응고롱고로 뿐입니다

★ 하나투어는 세렝게티 국립공원, 응고롱고로 국립공원, 킬리만자로 트래킹 포함입니다.★

세련된 호텔과 다양한 특식은 기본! 생생한 사파리 체험까지 내생애 특별한 여행을 선사해줄 아프리카 여행을 놓치지 마세요

- * BIG 5 사파리 게임 드라이브 관광
- * 아루샤-세렝게티 구간 경비행기 탑승 포함.
- * 잘보고 !!! 모든 여행자들의 로망, 대자연이 숨쉬는 미지의 대륙에서 동물의 왕국 여행
- * 잘먹고 !!! 지역별 현지 특식 포함(야마초마, 선셋크루즈, 랍스터, 보마식 등등)
- * 잘 자고 !!! 전일정 4성급, 5성급 위주의 현직 최고 호텔과 룸지 숙박.
- * 전일정 사파리 전문 한국어 하나투어 인솔자 동행

\$10,500

성수기 및 연휴 때는 항공요금이 인상
으로 인해 상품 가격이 달라집니다.

2016년 2월 17일
(LA 출발 기준)

타사 절대 비교



London STOCK EXCHANGE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이제 여행 갈때는 오직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나투어 213.736.1212

무료전화: 1.877.464.6121

이제 온라인으로 편리하고 저렴하게! www.usahanatour.com

3053 W. Olympic Blvd #101 L.A., CA 90006 <올림픽과 아드모어>

• 엘에이 본사 : 213.736.1212

• 뉴욕 직영사무소: 212.706.9177

• 라스베가스 사무소: 702.723.4977

• 하와이 직영사무소: 808.947.1212

• 한국에서 전화가실 때: 070.8224.4021



Nizmobile 해외에서 편리한 텔레폰 서비스
이제 로밍폰보다는 렌탈폰!
선불결제로 더욱 편리해진 니즈 모바일
선불결제로 더욱 편리해진 니즈 모바일
하나투어에서 텔레폰 가능! 시간단축!
(600이상 Pre Pay 가능)